朝鮮日報
夕刊
十六日(水)
本紙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元
本社發行刊行物 (月刊) 『朝光』 同 『女性』 同 『少年』

遠山部隊敵軍蹴散
新鄕陷落은目睫之間
中央軍二個師와廿九軍一個師全滅難免
上蔡에敵死體一千

【彰德十六日發同盟】京漢線의 我○○中央部隊는 敵의堅陣을 突破하고 衛輝의 第一防禦線에 十五日正午에 到着하야 어려움업시 이를 突破하고 다시 前進을 繼續하고잇다 또 北方遠山部隊는 退却하는 敵을蹴散하면서 十五日午後三時半에 新鄕北方四里되는 地點에 進出하엿다 이地點은 敵의新鄕陣地의 核心이되는 곳으로 新鄕陷落은 全然目睫間에切迫하엿다 長十里 寬十里되는 廣大한 陣地에依據한 敵中央軍二個師와 二十九軍一個師의運命은 全滅할바게되엿다

【汲縣十六日發同盟】京漢線에 沿하야 破竹之勢로 一路南으로 南으로 新鄕을 目指하는 遠山 森田 石黑의 各部隊는 退却하는 敵을 猛追하야 十五日朝에 遠山部隊는 田莊을 突破하고 衛輝의 西方을 通過하야 十六日朝에 新鄕西方의 陣地에 突擊을 開始하엿다 彰德出發以來 六日間에 各部隊가 다 眞正으로 놀랄만한 大追擊戰을 繼續하고잇다 今日까지 攻略한 敵의 陣地는 約五十에 達하고 黃河에 이르는 距離도 一層短縮되게되엿다

【鳳陽十五日發同盟】上蔡의 敵을完全히 包圍한 倉林 田代 橫尾各部隊는 十五日午前十一時四十五分에 一擧히 上蔡에 突入하야 四日間包圍中에잇서서 上蔡를 死守한 西山部隊와의 聯絡을 完成하엿다 敵은 我軍의猛攻에 依하야 死體一千을遺棄하고 午後二時에 淮河를 건너 馬鞍山方面에 潰走하고잇다 어 敵은 四川軍第百三十五師 第百三十八師及 中央傍系軍第四十八師이오 倉林 富田兩部隊는 敗走하는 敵을殲滅코저 急追中이다

京漢線猛進擊에
隴海線敵大動搖
開封、鄭州의固守不能을自認
紐育에報道된AP通信漢口電

【紐育十五日發同盟】京漢線方面에잇서서 日本軍의 作戰이 開始됨에依하야 漢口方面은 非常한 動搖를 이르키고잇는데 十五日 紐育에 到達한 AP漢口電에依하면 國民政府當局은『假使 增援部隊를 前線에 派遣하드라도 日本軍의 猛襲에 抵抗하야 開封 鄭州를 支持하기는 到底히 不可能하다』고 벌써隴海線方面의 戰況의 進展을 念慮하고 잇다고傳한다 또 蔣介石으로부터 隴海線死守의 委託을바든 第一線의 參謀總長 程潛은 日本軍의猛進에 悲鳴을 내여『防戰의支那軍은 各省으로부터 徵集된 雜軍으로 訓練에도缺一을欠하고 또相互間의反目嫉視가不絕하기때문에 全線의統制를 圖하기에 非常히困難하다』고말하는等 支那軍의 全面的 意氣阻喪은 숨길수업다 그리고 鄭州、漢口間의 電信은 去十三日의我의鄭州空爆以來 連絡이 杜絕되엿다고한다

虎門封鎖解除

【香港十四日發同盟】廣東軍當局은 虎門要塞附近의 封鎖를 十五日부터 解除할것을 發表하엿다 이때문에 香港發 廣東行汽船은 十五日午前八時에 香港發 廣東에向하엿다

司法權公正運用
大河內子、法相에게促省
十六日貴院本會議

【東京電話同盟】十六日의 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廿三分에開會하고 國務大臣의 演說에 對한 質疑를 續行하야 大河內輝耕子(研究) 大體에잇서서 今日의 司法制度는 公正하게 運用되고잇스나 具體的으로보면 遺憾되는點이업지아니하다 三土忠造君의 例를드러 質問하고십다 三土氏의 帝人事件에 關한 司法制度의 運用에對한 談話를 朗讀하고 帝人事件에 對하야보면 司法制度는 果然 公正하게 運用되는냐가 疑問이다 또大久保元銀行局長이 死까지도覺悟한 當時의 心境을 披瀝한 書面을 朗讀하고 黑田英雄氏의歎願書는 檢事와 合作이란點을 指摘하야 檢事의 態度를非難하고 또三土氏가 當時의 高橋藏相에 對하야 帝人事件의 根據업는 理由를述하고 內幕을 引用하야 齋藤內閣倒壞의 原因이된事情等을 述하야 檢事의責任을 追及한즉 議席에잇는 黑田氏는 感慨無量하게 傾聽하고잇다

大河內子 最後에 그가튼 不祥한 態度를取한 檢事와 檢事正의 責任을 如何히 處置하엿는냐 또關係된다고 생각하는데 首相과 法相은 如何히생각하는냐

近衛首相 司法制度運用에 關하야는 國民의 信賴를 엇지못하면 안된다 요즘 司法制度의 運用에對하야 이러니저러니 論議가잇슴은 甚히 遺憾이다 當局은 充分히 考慮를하고잇다고생각하나 政府로서는 그公正한運用에對하야 充分히 硏究를하야 그改善을하고십다

大河內子 此際에못고시는것은余의述한 歎願書가 虛僞의것이냐하는것을 認定하는냐 안하느냐이다

鹽野法相 司法制度의 運用에對하야 어러니저러니 疑惑을바듬은 甚히 遺憾이다 各方面으로부터 硏究를進行하야 그改善에 努力하고잇다 帝人事件에對하야 述한點은 大體로確定된判決에依하야 認定한바이다 余는이를 確信한다

井田磐楠男(公正)이非常時局에際하야 가장我等이遺憾으로 생각하고 慨歎하여이는바는 自由主義의溫床이라할만한 最高學府의 現狀이다 實로今日의最高學府는 非日本的思想의 本營이다 余가 如斯히 論함은 그理由가잇다 萬若이點에對하야 最高學府에서 不滿이잇다 고하면 余는何時든지 意見을 다투어 그是非를論하려고생각하다 그具體的事例로東大敎授 河合榮次郞博士著『社會政策原理』(十二年度版)의 內容을 朗讀하고 如斯한 非合法을 合法으로함은 共産主義者나 或은共産主義의 同情者라고 斷定치안흘수업다 고하야 河合榮次郞博士를 共産主義者나 或은共産主義의 同情者라고 斷定하고 이를要컨대 河合敎授의 學說을보면 最初는 自由主義이엿다 그것이 第三期純正社會主義와는 方法論을 달리하는것 뿐이오 共産主義와 一脈相通하야 實踐의 意思가잇다고 認定하는데 當局의所見如何 라고 質問하고 同十一時五十四分休憩

나치스重鎭入閣
墺內閣改造斷行
獨、墺兩巨頭會談結果

【維也納十五日發同盟】墺太利政府는 去十二日의 獨墺會談의結果 히틀러總統의 要望을드러 內閣改組를 斷行하고 나치스派의入閣을 許容하기로 決定하엿는데 特히 內相에는 墺太利 나치스의重鎭 인카-드氏를 起用하야 國內警察의 全權을 掌握시키기로 內定을보는模樣이다 新슈슈닉內閣의主要한 閣員으로 豫想되는人物은左와갓다

首相兼國防相 슈슈닉(留任)
副總理 쟁낫-드(新任)
外相 슈미-드(外務次官)
內相 인카-드(新任)

從來 墺太利內務省은 警察事務를擔當치안코 別로保安省이獨立으로 이에當하고잇섯는데 今後保安省을廢하고 保安部로 內務省에直屬시키기로 決定하엿스므로 保安部長에는 現保安相스쿠-불氏가 留任하야 인카-드新內相의指揮下에 活動하리라觀測된다 現內相 홀스레나우氏는 인카-드氏와가티 親獨派로指目되엿스나 警察權을가지지못하기때문에、거이有名無實의 存在이엿스나 홀스레나우氏를 代身하야 인카-드氏가 內相에就任하야 警察全權을掌握하게되면 墺太利에對한 나치스의 勢力을 一層强化하게될것이다

(寫眞은 슈슈닉首相)

既成政黨의一大變轉機
政黨解體?·政民合同?
總動員法案이試金石

【東京電話同盟】政友會의長老 川村竹治 木下謙次郞 熊谷直太의三氏는 十五日夜에 芝區紅葉館에 參集하야 政黨解散運動에 進出하기로되엿는데 議會政治와 政黨의 不振하는 現狀을打開함에는 既成政黨의 解黨을 要求하고 爲先 政友會로부터 解黨을 實現하려하는것인데 이革新意見의 裡面에는 近近議會에提出될 國家總動員法案을 支持하는 意向이 숨기여잇다고 觀測된다 이에對하야 黨議에 政民大合同論을 唱道한 常盤會는 來二十日에 丸內의 常盤에 會合을열고 國家總動員法案에對한 態度에對하야 協議하기로되엿는데 前回의 會合에서와 同樣으로 同法案에對하야는 絕對로 反對의 態度를 決定하리라 觀測된다 그리고 同日의 會合에서는 解黨問題、新黨問題에는 抵觸하지안코 總動員法만 檢討할것을 豫告하엿는데 結局 同派의 多數意見은 政民提携 또는 政民合同에잇다고 觀測되야 이에政黨은 二大分野에 再整理되게되고 審議의 進行에따라 이形勢는 漸次 截然 分明하야 저政黨大變轉을 상기게할는지도 모를模樣이다

政治犯釋放問題로
印度憲法上重大危機

【칼쿠타(印度)十五日發同盟】印度各州政府는 去番以來 知事에對하야 政治犯人釋放不干涉을 要求하야 重大政治問題化하는形勢에 이르럿는데 各州知事가이에 不應하기때문에 十五日에이르러 비하-르州와 아그라·오우드聯合州政府는 州知事의 措置에 抗議하기爲하야 마침내 總辭職을 敢行하고 또他의五州에도波及할 形勢에잇다 그리고 目下 풀리풀리에서 開催中인 全印國民會議派大會에서도 政治犯釋放問題는 討議의 中心이되야 活潑한討議가되고잇다 兩州政府의 總辭職에 依하야 全部에 亘하야 이問題를 圍繞하고 憲法上 重大危機를 招來하려하는 形勢에 瀕하엿다

全印動搖의兆

【칼쿠타(印度)十六日發同盟】비하-르州와 아그라·오우드聯合州兩政府가 州知事에對하야 政治犯釋放不干涉을 要求하고 十五日에 마친내 總辭職을敢行하엿는데 또他의 印度各州에서도波及하야 殘餘十三州政府의 總辭職은 只今時間問題로 보이게되엿다 印度政廳은 全印動搖의兆候를보고 事態를 重視하고 目下 그對策을 硏究中인데 近近中 議會를 招集하고 印度統治法第九十三條의 發動問題에依하야 各州知事의 行政權代行을 實施하게될模樣이다

獨墺會談에關한
墺政府콤뮤니케

【維也納十五日發同盟】墺太利政府는 十五日午後十時에 獨墺會談에關한 公式콤뮤니케를發表하엿다 콤뮤니케는 獨墺兩國政府가 歷史的共通地位에 基하야 緊密한 友好的關係를 確立할것을 强調한것으로 內容은左와갓다

去十二日 베르히테스가든의會談에서 獨墺兩國關係에 關한 모든 問題에 對하야 充分한 檢討를 하엿다 會談은 去一九三六年七月十一日의 獨墺協定의 實施에 際하야 發生한 諸困難을 除去하기로 目的한것으로 獨墺兩國이 다 獨墺協定의 諸原則을 遵守하고 右協定으로서 兩國關係의 滿足한 發展을 確立할 出發點으로 看做하기로 意見이 一致하엿다 十二日의 獨墺會談의 結果 獨墺兩國政府는 即時獨逸民族으로서의 歷史的 共通的 地位에 基하야 緊密한友好的關係의 確立을 保障할手段을 實行에 옮기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히틀러總統과 슈슈닉首相은 右會談이 同時에 歐洲情勢의 平和的發展에 有效히 寄與할것을 確信한다

北支警察指導에
朝鮮서五氏派遣

朝鮮과 新興北支政權과의 緊密한提携는 北支의 明朗化와함께 더욱强化하고잇는데 中國臨時政府에서는 北支의 治安을 確保하는 中堅警察官養成機關으로 行政院直轄下에 中央警察學校를新設하고 近近開校하게되야 同校의講師로 朝鮮總督府로부터 半島警察界의 指導的立場에잇는 高等官을 派遣하여달라고 去番 富田警察御用掛가 北支를 視察할때에 依賴를바덧슴으로 警務局에서는 兩來 鮮內警察界의 多事한때임에도 不拘하고 朝鮮과 北支의 提携라는大局的立場에서 이를依賴히 應諾하고人選中이든바 左의五氏를派遣하기로決定하엿다

黃海道警務課長 赤田 正雄
京畿保安課長 石川 友吉
警察官講習所敎授 渡邊 鐵郞
平南高等課長 北村 留吉
咸北外事課長 原田 一郎

그리고 一行은 來二十二日警務局에 參集하야 協議를한後 翌二十三日 京城發北京에 나아가數個月에亘하야 前記警察學校에서 敎鞭을잡다가 臨時政府인데 北支政權下의 第一回의 警察官養成에際하야 朝鮮으로부터 그講師를보냄은 가장意義기픈일이다

本社參觀

◀平安南道 農家更生指導部落中心人物視察團員二四名 金周浩氏引率下本社見學

八面鋒

◇ 一方으론 海軍建造案을 提出하면서 一方으론 海軍縮少會議를 召集說。
◇ 왼손에 코란經을 들고、오른손에 劍을든 마호메드의說法인가。
◇ 日本의 建艦通報拒否後 英米의 態度는 實로 可觀。
◇ 히틀러總統의 訪伊機會로獨墺伊三國이 會商說。
◇ 三國은 옛날의 同盟國、現下國情으로 보드래도 提携는 必至。
◇ 이에 對한 英佛等의 警戒動向이 구경거리。
◇ 今春 四月에 京城府 都市地域 指定令을 發布한다고。
◇ 都市計畫上 이것은 可、그러나 理想만 가지고 現實을 無視한다면 住民의 被害가不少。
◇ 봄비가 느실 느실、봄눈을 다 녹이네。
◇ 雨水、驚蟄이 가까웟스니 大同江、漢江인들 안 풀릴소냐。

總額四十億圓
臨時軍事費特別會計
無修正으로通過乎

【東京電話同盟】總額四十餘億圓의 臨時軍事費特別會計와 昭和十二年追加豫算約二千萬圓은 目下 大藏省主計局에서 編成中인데 벌서臨時軍事費의財源인 支那事變特別稅法案은 議會에提出되야 十七日의衆議院本會議에上程되게되엿스므로 大藏省에서는 可及的速히 豫算案을 議會에提出하려고 그處理를急히하고잇다 그리고 目下의豫想으로는 大體로來週二十一日頃에 提出될模樣인데 이것이提出되기를 기다려 衆議院에서는 同日은 本會議와 豫算總會를 開會하고 蔣政權의 徹底的潰滅을 目標로하는 長期作戰의 所要經費에 對하야 眞摯熱烈한 審議를하려고 同經費의 性質上 요전衆議院을 通過한 昭和十三年度 豫算同樣으로 全會一致無修正으로 通過를圖하리라觀測된다

世界國際聯盟協會
反日決議遂採擇

【倫敦十五日發同盟】世界國際聯盟協會는 反日國際大會와 併行하야 十三日부터 三日間에 亘하야 倫敦에서 理事會를 開催하고 十四日에 各國代表參加下에 列下의 國際諸問題를 討議하엿는데 그中 特히 日支問題에 對하야는 議論이 白熱하야 結局 十五日에 左의 反日決議를 採擇하고 閉會하엿다

一、聯盟各國에 對하야 日本의 侵略阻止에 必要한 外交上、財政上、經濟上의 一切의 措置를 하도록 要請할것、但 右措置를 有效하게하기 爲하야 各國의 集團的行動이 確保되기를 條件으로함

一、聯盟各國에 對하야 支那의 作戰에 모든 援助를 주는同時에 支那의 一般市民에게 食料 醫藥等을 供給하도록 要請할것

一、各國은 마땅히 日本品뽀이코트의 範圍를 擴大할것

國民投票執行하야
對日뽀이코트決行?
執拗한英國의態度

【倫敦十五日發同盟】反日國際大會의 中心眼目인 對日뽀이코-트案은 마친내決議되지못하고 十三日의大會를 다다럿는데 國際平和團體는 對日뽀이코-트를 徹底시키기爲하야 國際聯盟協會는 세실卿의 提案에基하야 對日뽀이코-트를 國民의總意에 뭇기爲하야 近近國民投票에依하야 決定할 模樣이다 一方 對支援助委員會는 來週를期하야『支那援助週間』을擧行하고 全國에亘하야 集會를開催하고 反日팜플레-드를配布하야 對日뽀이코-트를勸獎하기로 決定하는等英國平和團體의 對支援助는 依然執拗히 反復되고잇다

時事解說
中歐諸國新提携說

◇ 去十二日 히틀러總統은南獨베르히테스·가-든 山莊에서 墺太利首相 슈슈닉博士와 會談하엿는데 會談內容으로 傳하는바는 墺太利가 합스부르크王家의 復辟을 行하지안흘것과 政治犯을 大赦에 依하야 釋放할것을 條件으로 墺太利 以外의 나치스黨彈壓을 一切停止하고 또 오는二十日 獨逸議會의 히틀러總統의 演說에서 墺太利의 獨立을 尊重한다는 聲明을 發表하야 大體로 意見一致를 본모양인데 이것이 完了된後 最初의 外交工作이니만치 그推移가 注目된다.

◇ 十五日發表된 獨墺會談의콤뮤니케를보면 右會談에잇서서 兩國關係는 全般問題에 亘하야 討議되엿는데 一九三六年七月의 獨墺協定實施에 由緣하야 發生된 諸般難問題는 完全히 除去되고 兩政府는 歷史的乃至 共通的地盤에 立脚하야 緊密한 友好關係를 確立하기로 決定하엿다 하니 이것으로 會談成功을 알수잇는가한다.

◇ 他方 무솔리니首相의 昨秋 獨逸訪問에 對한 答禮로 히틀러總統이 來四月 伊太利訪問時에 슈슈닉首相도 羅馬에 赴하야 여기서 三巨頭는 一九三四年의 羅馬議定書及 伯林羅馬樞軸과는 別個로 도나우沿岸諸國의 政治的 經濟的 提携를 促하는 新提携案을 討議하리라 한다。將來之事라 將次 어찌 展開될는지는 알수업스나 伯林、羅馬樞軸에 墺太利로 하여금 더욱 緊密히 끌어드리려는 計劃은 다가티 獨逸의 民族的 第一步를 擁護하면서도 그獨立主權의 尊重及 나치스運動停止를 宣言하야 中歐新提携案의 成功을 期하고 잇는모양이나 獨伊兩國은 政治的으로 共通點이 만흔反面에 利害的으로 相反點도 多大하므로 合作의 持久性에 對하야는 아직도 未知數라 할것이다。

亞爾然丁新閣僚

【부에노스아이레스五日發同盟】新大統領 로베르토·오르티스博士를 首班으로하는 亞爾然丁新內閣의 閣員은 十五日 左와가티 決定하엿다
外相 호-세·마리아·칸틸로
藏相 페드로·로칼로
陸相 마르케스大將
海相 레온·스캇소中將

人事·集會

◀德田李王職長官 十七日午後一時二十五分 京城驛着歸任豫定
◀李鍾殷氏(東拓監事)入京 十五日來社

和信 萬年筆 インキ 品質本位 責任保證付

冬物品揃 毛編 メリヤス オーバセータ 手袋·沓下 現金問屋 (相塲表進呈) 大阪市東區南久太郞町四丁目心斎橋筋 合名會社 佐野繁商店 電話船場四〇一九番 振替大阪六九六三六番

向春 メリヤス 製造 現金 卸 洋品雜貨店에만時勢表送呈 大阪市上福島中央通 濱岡商店 電話福島一二六三番

(龍卷票) コール天及小倉 勞働服一般 セーラー服·學生服 乘馬ズボン·ジャンバー 其他コール天·各種洋服 製造卸 (同業商店ニ限リ製地相塲表送呈) 大阪市東區平野町一丁目二十番地 合資會社 若原重商店

有馬·青山·太繩 三醫學博士創製
結核免疫元
아오 AO 應用의現況及 世界各國에서의 認識
一、AO發見以來二十年으로서 昭和十二年까지 治療應用約二百五十萬人에達하고 豫防的應用은 九十三萬四千人에 達하야 그實蹟은 實로良好합니다 또大正十三年AO에 關한 國際的報告가 發表된以來 今日까지는 歐米三十餘個國에서 熱熱한AO禮讚의學者가 輩出하고잇습니다
아오 AO의 特長
一、特選菌株의 特殊培養을 基礎로한……免疫作用旺盛
一、多價와무척인것……實用効果大也
一、過敏元을 含有치아함……副作用絕無
一、免疫元의吸收를 妨害하는 蛋質이업슴……異物作用업고 吸收容易
一、純粹한 免疫元으로된……抗病力旺盛
一、完全한 自然死에빠진 菌體의 免疫有効成分으로된……絕對無危險
一、菌의免疫元作을 害치는何等의處理도 加入치아함……免疫元의 自然性保持
一、効力檢査(家兎의人眼結核을 實히 治療식히는 實驗)를 經하야 販賣함……効能不變
아오 AO의 適應症
治療的으로는 肺結核、眼科結核、肋膜腹炎、皮膚結核、外科結核、特히 初期肺結核及眼科結核에 對해서 著効한은 實證되고잇습니다
豫防的으로는潛伏結核、淋巴腺腫、虛弱體質、結核疑症、特히、腺病質結核의疑心이잇는 學生學童에 對해서 發病豫防位增强에 應用되야 効果顯著함으로 證明되고잇습니다 AO의 實驗臨床 AO에關해서 또結核問題의 實際에 對해서 懇切迅速히 弊店學術部에서 應答함
解說贈呈 發賣元 須美商店 大阪市東區北濱四丁目四〇番地

子女福利害안는限 妾嫁後도親權保有
子女教育을爲한財産處分도可當
未亡人生活問題의新判例

십오일 고등법원민사부에서는 평북의주군광성면마전동(義州郡光城面麻田洞)김상률(金尙律)이가 그의 아우의 친권자구성군오봉면봉연동(龜城郡五鳳面鳳淵洞)정다연(鄭多淵)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親權喪失)소송사건에 대하야 친권상실의 원인인 현저한 불미한 행동이 잇느냐 업느냐는 친권자의 행위가 재산처분한 경제행위가 아니라 그행위가 아동들의 복리를 해치느냐 안하느냐를 표준하야 이를결정할것이라는 신판례(新判例)를 지어 결혼과부가 아동들을 만이데리고 고생하다못하야 남의첩으로가도 그것만으로는 그아동에대한 친권을 상실하지안는다고하엿다

사건의 내용인즉 원고인 김상률은 그의아우인 평북태천군원면원봉동(泰川郡院面圓峰洞)에 종률(金鍾律)의 친권자인 피고정상엽이가 지금으로부터 십년전에 원고의 선친김종인(金鍾仁)이죽은후 귀성군오봉면봉연동오(吳)모에게 첩사리를가서 아들딸두명까지 나코 지금도 부첩관계를 맺고잇슴에 불구하고 원고의 아우 종률의 친권자로잇슴을 기화로하야 그의소유전답이천사백여평은 소화팔년삼월십일원에 친족회의의 동의도업시 그곳 오(吳)면에게 출가하야 금백오십원에 팔어서 전부 그의 남편인우모에게 바첫스니 이것은친권을 상실한현저한 불미한행동인즉 종률에대한 친권상실을확인하야달라는 소송을 작년봄에 신의주 지방법원에 제출 하야 그법원에서는 작년칠월에 원고가 승소하야 피고는 종률에대한친권을 상실하게 되엿섯다 그러나피고는 그땅을파러먹고 또우모의첩으로 가정을사실이나 생활이 곤난하야 부득이 첩사리를가서 종률을데리고가 그를 양육하기에 그전답을파러썻는데 이것이 무슨친권상실의원인이되느냐고 공소하야 평양복심에서는 작년구월십삼일 피고가 승소하야 그대로 친권을 행사 하게되엿다 이리하야 원고가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야 그간계쟁을 계속하여오든바 십오일 도변(渡邊)재판장은 전기한바와가티 「친권자의 행위가 아동의 복리를해치느냐 안느냐를참작할것」이라는 판례를지어 상고기각판결을내리어 피고는 친권을일치안케된것이다

校舍貸用未決로 崇專等後繼困難
大同工專以下新入生募集遲延
三月初當局聲明發表

【平壤】숭실전문학교(崇專)를비롯하여 숭실학교(崇中)와 숭의녀학교(崇義)등 세학교는 삼월삼십일일을 최후로 선교회에서는 폐교하기로 태도를결정하고 벌서폐교신청까지 햇스므로 세학교는 각기다른학교로 전신하게되엿스나 숭전의뒤를 이어 건설되는 대동공업(大同工業)이나 량숭의학교를 고등보통학교로수용할 교사문제는 미국외지 전도국으로부터 교사대용안(校舍貸用案)에대한 하등의회답이 업서신설교설립에대한 정식수속을 하지못하채 오늘에 일으고잇다 이때문에 량숭학교생도의처분 또는 학년연장등에대한 태도도 도당국으로서는 정할수가업게된 모양으로 숭실과숭의의 신입생의 입학시험을 평양고등보통학교와 녀자고등보통학교입학시험장에서 동시에 모집하려든 계획도 방금 결정을 못짓고 잇는터이다 이런 실시되는 량공립고등보통학교입학시험때에 신설 량교의 신입생도도 동시에 모집하려는방침이 정체되이업느냐 하는데대하야 무미(武尾)평남도학무과장은 교사문제가해결되지못햇스니 꼭그러케될지 이될지 의문이라는답변을하여야 직까지 신설교의신입생을 모집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지못한것을 알수잇다 그러나 도학무당국에서는 선교회측에서비공식이나마 이달하순에는 어기지안코 미국외지 전도국으로부터회보가 도착될것이 어김업다고 통고해온사실에 비추워교사문제의대용을 전연비관하지안코잇스나 엇재든 이달하순 내지삼월초순에는 삼교문제에대한 도당국의 방침을 피력한 장문의 성명서(聲明書)를 발표하고 태도를 선명히하기로되엿다

朝鮮獻納機 立川出發
십륙일아침에

【立川電話同盟】조선총독부헌납의 애국기 공중수송의사명을 받은 비행제오련대(第五聯隊)에서는립천(立川) 경성(京城)간의 정기항법(定規航法)을 겸하여 곡내(谷內)련대장지휘의 육기는 십륙일 오전팔시사십분 용약 립천(立川)을 출발하여 각무원(各務原) 상공에서 좌등(佐藤)대위 지휘하는 사기(四機)와 합하여 애국기십기는 당당히 은익을 나란히하여 일로경성을 향하여 떠나갓다 이십일경성비행장에서 성대한명명식(命名式)이 거행되기로되엿다한다

一春雨霏霏一 우수경칩을 압두고 내리는 새봄첫비 (오늘시내소견)

雨水、驚蟄압두고 中部以南에春雨
명일부터개이고다소쌀쌀해저
봄氣運은漸次到來

립춘(立春)도 이미지나 우수(雨水)날도 이제사흘아프로 사흘압흔 십륙일은 아침부터시내에는 봄비가 촉촉하야 전일에 싸히엇든 눈도어름도 녹아내리어 개천은제법놀이 졸졸흐르고잇서 봄절에 들어가는감이 깁다 이비가지나면 춘분도점차 봄기운을 먹게될것갓다 청몰의 비를 마지하는 기상을다진하면 어제십오일 만주와지나내륙에발생한 저기압이 오늘아침에는만주중부와 국경중부황해와 동지나해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뻣쳐 련달리어 불련속선(不連續線)을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고잇다 이때문에 황해일대와조선은 기류가 불안정하여 비가 오는것인데 십륙일정오까지의 경성의 우량은 오미리이다

중부조선이남은 거의 끌고루 봄비가 내리고잇고 북부국경지방은 중강진(中江鎭) 신의주(新義州)지방에 눈이오고잇다 이비는 오늘밤까지오고 래일부터는 몽고방면에서 뒤쫏차오는 고기압으로인하야 북서풍(北西風)이 불며 날은개이고 다소추워지리라고한다

그러나 역시 시절은 봄이라 이비가 개이면 남조선지방은봄소식이 완연할것이다

河氏寄附態度에 晋州側緊張
職業校設立問題解決코저 期成會側다시活動

【晋州】진주 하영진(河泳珍)씨가 진주직업학교(職業學校)설립을 목적하고 제공하사재 토지 칠백여두락을 중심으로 그간하씨는 육영회(育英會)를 고집하고 후원회(後援會)는 직업학교설치에 매진하겟다고 대립중으로 경과해오든바 그동안 후원회를 해소하고 기성회를조직하여 회장 조우제(趙佑濟)씨이하 여원일동은 목적관철을 위하여 노력한 경과에 대하야는 이미본보에 보도하엿거니와 그후 기성회측에서는 루차 하씨를 방문하고 반성하기를 구하엿스나 종시 듯지 아니하므로 지난 일월삼십일 내용증명으로 해토지를 기성회에서 접수하여 재단법인(財團法人)을 조직할것을 통고하엿든바 하씨는 별개로 육영회를 합동으로 재단법인을 조직할 공작을 개시하여 사태는 자못 복잡화하여가서 귀결여하가 주시되든바 기성회측에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일방 하동군북천면(河東郡北川面)기타에 산재한 기부토지를 직접 기성회에서 관리하기로되어 소작인을 단합하고 착착준비를 진행하야 수속까지 완비중 지난 이월초순에 돌연 하씨는 모씨를 대동하고 경성으로 가서 리종환씨재단에 양도한다는 설이잇스므로 기성회에서는 또다시 놀래서 진상을 조사하는일방 십오일오후세시부터 긴급역원회(緊急役員會)를 개최하여 선후책을 토의하엿다

人民戰線教授問題로 東大에一大波瀾
檢擧된三教授의處分問題로
今日東大經濟學部教授會議

【東京電話同盟】제이차인민전선파(人民戰線派)검거때에 동경제대(東京帝大)에서 경제학부교수 대내병위(大內兵衛) 조교수유택광기(有澤廣巳) 동조교수협촌의태랑(脇村義太郞)삼씨의 처분문제에대하여서는 기소(起訴)전휴직시키자는 강경한태도가 전파되여 이에대하야 대학측이어떤태도를가질런지 주목되고잇든중 십륙일오후한시부터 열리는 동대학경제학부 교수회에서는 결원보충등의 문제외에 전기교수 조교수등세사람의 처분문제가중대한 토의거리가될터이다 즉 즉시휴직을주장하는 강경파와 기소를기다려서 처분을 할것이라는온건파의량파에나누어 대학내에는일찍이업는파란이 일어날형세이다 즉시휴직파는 대학내자숙(自肅)의립장에서 개인정상으로는미안하지만 현하의시국으로보아대학이솔선해서 국가의의사에 적극적참여를 하는태도로 즉시처단행하야 그의사를표시하자는것이고 또온건파에서는 문관분한령(文官分限令)에 「기소를기다려서 휴직을시킬수잇슴」잇슴으로 기소전에처분을결정함은 경솔하다고하는것이다 또문부성에서휴직시킨다고 전하는근거는 문관분한령에 「관청사무의사정상」이라는조목을 적용하여 휴직시킨다고하나 과연대학교수의 휴직은 관청사무의사정상이라는 법규적해석이 올흘까하는것이 가장의문되는점이다

그래서 교수회는 량파로대립하야분규를면치못할모양으로 이날교수회는 극히 주목되고잇다

定平農組事件 證人을召喚키로
昨日京城覆審의公判

지난십사일부터 경성복심법원에서 시본(矢本)재판장주심 리견(里見)검사 관여하에 열린소위 정평적색농민조합(定平赤色農民組合)재건사건 관계자 한영윤(韓永允)외 륙십명에대한 치안유지법위반 출판법위반등피고사건 복심공판은 십륙일오전까지 속행하야 사실심리를 마첫는데 피고들이 증인신문을신청하엿슴으로 오는 이십이일에 다시 공판을열어 증인을신문한후 결심하기로되엿다한다

處女誘拐犯被捉

경기도광주군도척면두매리(廣州郡都尺面斗梅里) 리철영(李喆永)(二六)은 부내황금정칠정목 김수창(金壽昌)(二七)과 공모하고 지난일월이십오일 전기두매리 한덕수(韓德洙)의큰딸 리금복(李今福)(一七)을 강원도수원(?)문지(文律)하에 데리고가서 음식점영업하게 하여준다고 감언리설로 속여가지고 그를데리

京城府教育會 總會와表彰式

경성부 교육회에서는 오는십구일 오후두시부터 시내 장곡천정 공회당에서 제십일회총회를 열고 제십사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거행하기로 하엿다 한다

處女時代사랑의씨를 出嫁後分娩壓殺
殷栗署에서取調中

【海州】처녀시대에 무정한사랑의씨가 자기의남편이 두려워서 몰ㅅ고만여자—황해도은률군장련면사리(殷栗郡長連面沙里)정진옥(鄭鎭玉)(二〇)은 작년봄부터 안악군서하면오리(安岳郡西下面五里)의 한 남자와 우연히알게되어 정충의불을 통하게 되엿는데 작년시월에부모의명령으로 동리사는 박구남(朴九男)이라는 소년과 결혼하엿스나 처녀시대에 사랑을속삭이든사랑의 원수의씨가남어잇서 항상근심으로 지내오든중 지난구일에 변소에서게집애를분만하엿다 진옥은 결혼한지 몃달아니되어 애를나은것이 하두부끄럽고 또한남편이 두려워서 할수업시변소에서 어린것을 재속에다파무더서 죽이어 버리엇는데 이것이자연경찰에탐지되어방금은률서에서취조중이라한다

變心한本妻를 칼로찔러重傷
檢事三年役求刑

변심한 애처를 칼로찔러 중상시키고 다시말리는 가던부녀까지 다리를 찔러 상해를입힌 황주군 주서면신상리 삼백사십번지 (?)에 대한 상해피고사건 공판은 십오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열리엇는데 피고는 삼년전부터 본처와 사이가 조치못하야 본처가 친정으로 가버리엇다가 다시 도라오지 안는것을 원망하야 범행을 한것이라 하며 검사로부터 징역삼년을 구형하엿다

蠑人脫走타가 電柱에衝突
훈도、소사등세명부상
亂暴한오트바이君

「오-트바이」가 사람을치우고 도망하다가 전주에충돌하야 야이중교통사고를내엿다 십오일오전열한시반쯤 부내합정(蛤町)이십팔번지룡호에 사는 부외 숭인공립보통학교(崇仁公普校)훈도 리정래(李楨來)(二〇)씨와 숭인공보소사정득복(鄭得福)(二〇)군의량명이 돈암정(敦岩町)일백이십번지압흘 지날때 시내쪽으로부터 질풍가티 달려오든한대의 「오-트바이」가 전기량명을치바더노코 그대로 도망하다가 또다시부근평산목장(平山牧場)아페잇는 전주에충돌하야 운전수황금정(黃金町)자전거포직공안기순(安基順)(二〇)은 입살이찌저젓다 피해자리훈도는 입살을다첫스며 정소사는 왼손에 중상을입어 지금 부민병원(府民病院)에 입원치료중인데 전치 일개월을 요하리라고한다 가해운전수 안기순은 상해죄로 동대문서에서취조를밧고잇는중이다

良家婦女도끼인 大規模의痲藥犯
四十二名에겐略式命令내리고
五十五名公判廻付

【光州】작년구월하순에 광주경찰서에서는 서원이 총동원하야 광주부양림정(楊林町)사는 정충모(鄭仲模)(四〇)를 위시하야 전남도내는물론 남조선여러곳에궁하야 약이백명을 일제히 검거하야 조선마약령위반죄의 혐의로취조를 마치고 작년십이월오일에 광주검사국에 구십구명의 다수원을 송치하엿든사건은 그중에는 상당하다는 소위 량가의 부인파령양등도 만흐며 또는지방에서 인망잇다는자도잇서 일반의 주목꺼리가되여 왓는데 그중 사십이명은 략식명령으로 최고삼백원으로부터 오십원까지 벌금형에처하고 남어지 오십오명은 공판에넘기어 오는이십이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김정호(金鼎鎬)판사담임하 향천(香川)검사 립회하에공판이 개정될터이다 그룹이 만주로부터 마약을 다량 밀수입하야 남조선 각군별로해 임자를두어 조직적으로 고묘히 당국의눈을 숨기어 대담히도범행한것은 그인원으로보드라도조선에서 처음보는 대마약사건이라한다 그러고 현재조사에나타난 금액만이 삼사만원이된다는바실제에잇서 주모자정충모를미체포하야 확실한 액수는알수업다한다

碧潼에腸窒扶斯

【碧潼】평북벽동(碧潼)지방에는 장질부사가 발생되여 일반은크게 념녀한다하여 당지경찰서에서는 방역에힘쓰는중이라는데십사일까지 발견된것이 네집에세명이라는바 시절이 시절이니만치 만연할념려가잇다하야 일반가정의 주의가필요하다고한다

店員이라詐稱 警官아페서窃盜

어제십오일밤열한시경에 시내경정(京町)삼정목 풍국제분회사(豐國製粉會社)창고속에서 괴한두명이 밀가루열다섯부대를 가지고나와 손구루마에 실고가는것을 때마침순찰중이든 룡산서원이 발견하고 심문한즉 우리들은 풍국제분회사고용인으로배달을 가는것이라고 대답함으로그래도 수상한점이잇서 뒤를따라가보즉 이자들은 손구루마에다실고간 밀가루부대를 대흥정(大興町)뒤산속으로 끌고들어가서 숨기어두랴는것을 체포하여인치하고 취조중이라는데 이자들은 이외에도 여죄가만타고한다

定州防護團結成

【定州】(朝鮮總督府許可濟) 비상시국에 직면한 작년가을벌써 정주읍내에 방호단결성의 기운이 농후하드니 지난일월이래읍내각관공서장 민간유력자들이수차 회집하여 상의한결과 이월십일일 기원절을 당하여 정주방호단결성식을 거행하엿는데다수단원이 모인가운데 의기자못발랄하여 총후방공의 대임을맛는중대한 행사를 마추엇다

三百餘共產匪出現 警察武裝解除·掠奪
三十分間演說까지하고潛跡
對岸臨江縣內의被害

십오일오전령시반경 평북중강진(中江鎭)대안 림강현두도구삼도양차(臨江縣頭道溝三道陽岔)로 아산(帽兒山)부방 일리반되는곳에 동북항일련군(東北抗日聯軍) 리단장(李團長)의부하로 기관총다섯대를가진 공산병비약삼백명이 래습하야 경비전화를끈코 경찰분주재소와 자경단원숙소를 습격하야 무장을해제하고 략탈을한다음 약삼십분간 부락민에게연설하고 잘가라 장북동시량을 징발하야 다섯대의 썰매에 실고 부락민 삼사명을 뭇꿀어가지고 동부락에서 동방 일천삼백미돌 고지(高地)방면으로 도주하엿다 전화련락이 안되여 이날아침 다섯시에야 겨우 사실을 알게된 림강경찰서에서는 곳 경찰대를 출동시키어 동시에는 동흥(興本)○○대 중강경찰대가 토벌차로 떠낫다 어미 시간이 만히경과햇기때문에 병비의 자최는 발견치 못하엿고 조선측은 겨울의 처음되는 유력한 병비임으로일층 긴장하야 경계중이다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滿洲中部와 國境中部 黃海及東支那海에잇서 漸漸南東쪽으로 깁게 不連續線을 伴하고 모두 東進하고잇다 高氣壓은 蒙古에七七二粍와 本州中部에七六八粍를 보이고잇다 滿洲及國境은 눈이오고 朝鮮은흐리고 湖南地方은비가오고잇다 西日本은흐리며 그外는개인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비나 또는눈이오고 明日은北西의바람이잇고 개이고 차워지며 京畿道全區도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五度一
同 最低 零下〇度七
今朝最低 一度四
今日正午 三度一

G-U-사이드의偉效

社會病患者에게一大光明！

G-U-사이드가 從來의治淋劑와는 全然其類를달리한 新發見의特效因子를含有한 治淋特效劑로서 現今全世界治淋界에 一大센세이슌을惹起한것은 續續發表된 諸臨床報告로써 證明할수잇슴니다。

G-U-사이드는服用도極히簡便하여 胃腸을害치안흐며 急慢性을不問하고 大槪服用三日乃至七日이면 疼痛排膿이中止되여 迅速한效果를奏하게되니實로 本劑의出現은 社會病患者에게一大光明이라고할수잇슴니다。

(全國有名藥房에서販賣합니다)

採用 制度改正、固定給支給 温厚篤實なる活動家を求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野村生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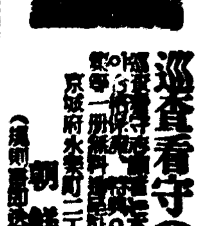
出張所長招聘 平南北、黃海道中心으로希望者 大正生命 日本教育生命 平壤支部 (電話二三〇二番)

多益多賣

自動車

朝報商

サンセイ人工鼓膜 サンセ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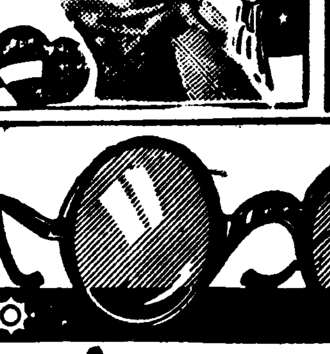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集募徒生 京城測量技術講習所 ▲科目 土地測量學、測量規定、法規、計記、製圖、伸縮圖法、數學、滿洲語、寫眞 ▲出願 昭和十三年三月三十一日 ▲考査 昭和十三年四月一日 ▲六個月卒業 ▲學則請求郵三錢切手 京城府蓬萊町一九五 電光二七八九

少年 三月號 "入學戰線突破"號 단十錢(送料一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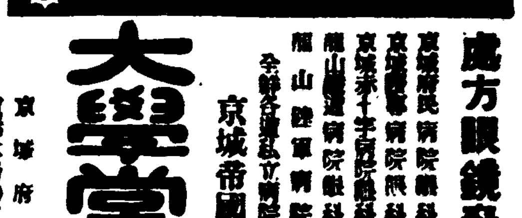
一、第一學年 約百名、出願期日 三月十二日限 財團法人 養正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試驗期日 三月二十日、一日、二日、三日、四日、五日間 京城府蓬萊町 電話本局(2)五〇二五番



第十五回生募集 京城高等速記學院(前期) ▲新學期開始四月十六日 ▲各科夜 ▲學則要三錢切手 ▲各官廳、銀行會社、商店等就職紹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電話本局五三六〇)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中等科 第一部、二部、三部 文官科 巡査、看守受驗準備科 ▲新學期開始四月十六日 ▲學則要三錢切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電話本局五三六〇)

講臺寶庫五割特賣 講臺寶庫는 要求에 依하여 再版 三版 하오니 本月末日까지 送金하시압 (二月末日郵便印有効) 一、定價와 送料 第一、二、三、四輯 各八十錢 送料各九錢 第五輯 三十錢 送料三錢 第六輯 三十五錢 送料三錢 一、但 第一輯만은 三版定價 六十錢式에 提供함 一、此際에 보지고 相當하사 彼此間에 勿失好機하시압 京城府新設町二五의九號 講臺社 金正賢 振替京城一九七四五



各眼科病院 處方眼鏡責任調製 京城府民病院眼科 京城赤十字病院眼科 京城醫專病院眼科 龍山鐵道病院眼科 龍山陸軍病院 京城帝國大學御用 大學堂眼鏡店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2)三七五番 京一二一九

胃腸榮養 錠剤 わかもと

와 가 모 도

複合へーフェ菌剤

藥價低廉 一日僅か數錢

三百錠 二十五日分 一圓六十錢

十歲前後의兒童에는約四十日量·五歲前後에는六十日量에該當

德用千錠入 五圓 慰問袋用五十錢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東京芝公園·大阪天滿橋際·奉天信濃町

貧血의 原因療法

胃腸病に伴ふ貧血

慢性胃腸病

特히胃腸가다루、消化不良、胃弱等으로 食物의消化、吸收가오래障碍되고 榮養不良에 빠진경우에는 貧血합니다

어러한 경우에는 胃腸의機能을活潑하하고 衰弱해진消化、吸收의 作用을旺盛케하는療法을하면 貧血은 自然恢復할수가잇슴니다。

—『錠剤わかもと』는

이目的에가장適合한藥剤

로서 豐富한 비타민B를 爲始하야 各種酵素其他의 協力에依하야 胃腸의衰弱을 恢復하고 食物의 消化吸收를 旺盛케하야 食物中에 含有해잇는 造血에必要한 榮養素를 잘利用시키고 또한『錠剤わかもと』中에도造血作用이잇는 鐵과 비타민E等이 含有해잇스므로 이것을먹으면 맛치胃腸藥과 造血劑를併用하는것과 똑가튼效果가잇슴니다。

結核に伴ふ貧血

結核病者는

胃腸이衰弱해서全身의榮養이衰弱해잇는 것과또한 結核菌毒素의 害에依하야 血球가 破壞되야貧血을이르킴니다

前述과如히『錠剤わかもと』는 胃腸의 衰弱을恢復하고 增血의 效果도 併有해잇지마는 結核治療上에 더욱기빼할것은 白血球의喰菌作用을 增進하는效果가잇는것임니다

白血球가結核菌을殺喰하는

活動을하는것은 임의아는事實이며 그때문에白血球를 增加해서 그活働을 旺盛케함은 結核의 治療上大端히 效果가 만함은말할것도업슴니다

그런데『錠剤わかもと』가 白血球를增加한다는 것은 京都帝國大學의實驗도잇스며 어點은『錠剤わかもと』가 胃腸의機能을 活潑케하는 作用과 아울러 食慾을 增進하고 熱을내려서 衰弱을 恢復시키는 主要한 原因을 만드는 것임니다

産婦と虛弱兒の貧血

出産을하면

二五〇瓦으로三〇〇瓦可量의피를일허바리고 또分娩의 疲勞와乳兒에의 授乳로 産婦는 衰弱해서貧血하게됨니다。

그러데 産婦가『錠剤わかもと』를 먹으면 비타민A·B、칼슘、鐵、아미노酸等産後의衰弱恢復과 榮養이豐富한 乳汁을充分히 分泌시키는 榮養素를 補給합니다、따라서 産後의衰弱과 貧血이早速히恢復되고어 기도 튼튼히發育됩니다 다음에所謂

肝氣가잇고、蛔가잇다고

해서 여위고 筋肉의 發達이나쁜 神經性素質의 아해도 貧血하기쉽슴니다 여기도『錠剤わかもと』가 大端히조와서 身體의 抵抗力을强하게하야 食慾을增進하고特히飮食을가려먹는버릇어矯正됨에는 어느家庭에서나기뻐하는바입니다 또『錠剤わかもと』에는 弱한 兒童의 發育促進素라고도 할貴重한 榮養素인 리진、히스치진等도 含有해잇서서 發育을 速하게하고 살을찌게하야 體力을强하게하는點으로도 大端히훌륭합니다

彈丸獻納御報告

—陸軍省에獻納—

昨年九月、皇軍의奮戰에感激하고 一層奉公의 誠意를다하며、わかもと愛用者여러분의게 次箱의寄贈을請하와 次箱一個에對하야、小銃彈一發의 比例로陸軍省에獻納하는 趣意를發表하엿든바 겨우 一、二回의 廣告에도不拘하고 全國으로부터 續續次箱의送附가잇서서 總數十八萬四千九百五十七發分에達하얏슴으로 去一月二十二日 陸軍省에 獻納의 手續을 完了햇슴니다 어모임에贊同協力해주신 全國의愛用家並藥店各位에 深甚한感謝를드리옵니다。

또한 右主旨와 同時에行한 三千圓割增金附勸業債券 三千名當選의 懸賞問題의 答「圓」의 正解者는 十七萬七千五百五十九名에達하엿슴으로 그中에서 嚴正抽籤한結果 別記의 여러분이 當選되엿슴니다

(當選된債券은二十日以內에發送합니다)

三千圓割增金附勸業債券二千名當選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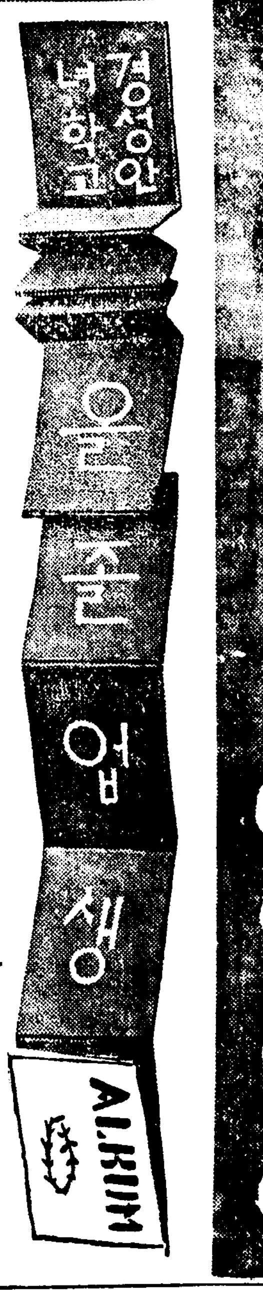
戻町商店、新井福太郎、中曾根正之、前原瀨壽治、加藤善作、藤原三衛、田中忠三郎、武藤菊治郎、佐合幸子、伊藤富美子、鈴木今子、直木鋼一、太田政太郎、野瀨常吉、吉野留三、高山三郎、德川守雄、定方金治郎、坂本壽久雄、大島三次、齋藤富十郎、小暮健一、伏島道德、大塚たつ、平井幸太郎、今井善四郎、石井伊之吉、牛込新一郎、山本氏之助、鈴木三枝子、川端千代松、吉良網吉、岩田松七郎、櫻井英男、齋藤伊之吉、清水仲治郎、田端高次

【茨城縣】小澤榮枝子、龜下タミ、馬場高德、櫻山隆介、中山敬一、江木屋魚店、坂本範子、馬場勝太郎、潮田三郎、玉生信男、殼浦ふく、入江西次、田中武四郎、橋本シヅ、瀨口勁、小澤任、黒澤みち子、吉田一男、石津せき、宮作興次衛門、朝倉大助、大野文之助、須田義質、吉田德太郎、平塚義雄、顯井ヒデ子

【埼玉縣】石田利三、齋藤道太郎、下田正彦、大村清三、下山茂、宮本孺一、土屋正作、三浦惟吉、山崎一郎、中村勝夫、清水武雄、坂爪理七、深井コト子、櫻澤正剛、大塚英子、三日月雄二、藤谷直子、府川勉、金子鍛治郎、柏木貫太郎、根岸傳吉、瀨田峰光、貫橋繁

【千葉縣】淺野英明、甲木茂、岡本露子、佐久間フク、峯岸近重、太田芳松、石山健二郎、富田堅次郎、鈴木留三郎、青山とよ、木島要久、佐藤彩男、川上弘大、平岡芳江、加藤新一郎、中村幸次、鈴木益一郎、出山豐一、加瀨毅、川島みどり、桜宮千代治、高吉長吉

【東京府】内山雅次、高木正元、栗原竹治、竹中廣美、原峰男、加藤君江、眞秀男、豐田三郎、小柳富一、岡田幸三、佐野悦、飛澤靜子、森原繁郎、山田雄一、岡村務、方波見辰雄、齋藤美、横田信、澤伊三郎、田中正一、橋本陽子、渡邊文子、山中青、河原崎節子、金澤すゞ、河内正利、莊司寅雄、角振森男、高橋仙太郎、大竹長治、渡邊朝雄、進士幸、古矢武、河合秀雄、桑島國雄、伊藤義延、島村平次郎、杉原幸七、關澤悠治、野村ハル、松本よし江、齋藤喜助、菅谷順一郎、鈴木傳二郎、仁田清次郎、關塚理せ子、若井成夫、小林光太郎、小林保光、町田厳良、馬場三治、佐藤直、石飛寫入雄、後藤鍵衛門、熊芙正、宮崎奥志子、島村近平、綱本昌節、川原幸子、都築綱治、淵井岡根、別府信明、鵜澤博傳、久保田亮一、加藤りん、尾杯謙、長島勇、高木けい、小山野口常吉、熊谷小蔵、石川淑子、秋葉守男、下山はまる、河上孝次、武富ふみ子、五十嵐榮治、本木清之助、中島竹雄、三井章子、水谷



送別歌

一、기약업시 서로만나서
언는결에 정이들엇고
아침저녁 마주안저서
눈물과 우슴속에 웃네
잇지마오 벗님네들
어디로가나 서로잇지마오
잘가시오 벗님네들
편안히 가ㅣ시오

二、기약업시 떠나는걸음
어니적에 다시만나리
굳은마음 변함이업시
이겨레 위하야일하오
잇지마오 벗님네를
어디로가나서로잇지마오
잘가시오 벗님네들
편안히 가ㅣ시오

이십사명일소대 사회로향하는ㅣ최전선

개가부르는곳에어린이의미소

재기가넘치는면면상

中央保育

인제는 속일수업는 봄인가봅니다 중앙보육학교(中央保育學校)마루턱을 올리가는데 해동된길이 질어서 고생스러웟습니다. 이학교는 작년부터 명수대에다가 커다란새교사를짓고 삼월말에는 그리로 옴겨가랴는 준비를하고잇섯습니다

오래ㅅ동안 만흔희로움을 길러준 이학교가 재정의곤난을받다가 교장임영신씨가 미국에서활동하야 새교사를짓고 크게소리치라는것입니다 전하의봄을 이학교만이독차지한듯ㅡ계단을올려서니 교실에서는 피아노소리와노래소리가 요란스러웟습니다

◇

삼월이에 꼿치피울 귀여운 어린이들 굿세고 지혜롭게 고히길러 내라고 열세길로 모혀드니 그정성그이의 교정에넘치네 우리중앙보육

◇

교가의 한절입니다 우리의새로운 작ㅣ귀여운 아기들을 길러주랴는것은 우리의일꾼이운데 제일큰일이엿습니다 이러한 큰일을 마련서우리로 하야금 빗나는 명일을가저다 주기위한용사ㅡ

그들은 섬스러일터에로 나갈준비를 하고이섯습니다.

졸업생 소개를 한는사진 옴짝으라고 늘려섯는데 여기는 전문학교인만큼 학생들이 수집은것이 업고씩씩하며 꼿꼿한수오소리들을하야 기자를 놀려주는것도 유쾌하얏습니다.

명랑이라것이 우리에게라도잇다면 그것은 여기에서 찻출수잇는것이라고 생각하얏습니다

이학교의 올졸업생은 모다가 스물네사람인데 수효는만치안흐나 제각기 특색잇는재질들을가진 재원이엿습니다

위선 학생회회장인 강갑순(姜甲淳)양은 연극잘하고 글잘짓고 인격자고 합니다 글은 특히잇세이에 능하며 성격이 뭄시순후하야 학생들의신망을 밧는다고 합니다.

양전하고 재조잇는모범생 강경자(姜瓊子)박필인(朴華仁)양 무용잘하고음악잘하는 장수봉(張守奉)양그밧게 운동선수로는강갑순(姜甲順)리지영(李芝永)리화자(李花子)박창순(朴昌淳)조성녀(趙成女)박필인(朴華仁)조성양을 들수잇스며 전조선빙상경기대회에서 활약한 스켓트선수로 서길순(徐吉順)양이잇습니다.

박필인(朴華仁)양은 피아노를 잘하고 조성녀(趙成女)양은 성악을 잘 할뿐아니라 어떠케 말을 잘하는지 웅변대회에서 상을탓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유ㅣ모러스로서 이분이 입을열면 울던사람도 능히웃길수가 잇다고 합니다.

교복은 검정치마에 흰저고리를 입습니다 교표는 가장자리를 열분한을비추도하고 복판이짓는데 이속에다가「中央」이라고 글자를 너헛습니다. 특별한뜻은 업고 그저명랑하며 착실한것을 표한한것입니다.

(사진은 올졸업생전체와 교외의 스냅노동생과 연극운회 올업생에 재조잇는이들)

졸업생 스물네사람가운데 졸업한뒤의 지원을알어보니 천천인보모가 열여섯사람이며 상급학교가 다섯사람 가사를보겟다니가 세사람이엿습니다.

금년졸업생들은 화과성적이 예년에 볼수업도록우수하며 다방면의 취미를 가젓다고 선생님이 자랑하얏습니다

이학교교장임씨는 아죽도 뉴ㅣ욕에서 활동중이며이로서 재원이풍부하게되엿다고합니다.

오는사월달중순에는 조선에드라오겟다는편지가와잇다는데 그동안 교장대리로 차사백(車士百)씨가일을보ㅣ것다고합니다.

姜甲淳 姜瓊子 金可□ 金麗嬡
金炳淳 金小娥 金善嗣 金正男
金邃鎬 金昭女 李芝永 李利姬
李允弘 李花子 朴昌淳 朴華仁
白玉寶 徐吉順 孫玉壽 趙成女
張守奉 曹恩吉 崔蕙婉 文孝善

사진ㅡ졸업생들、우등생들、음악잘하는재원들 명수대의본일

어버이가몬저 실망해선안돼요

입학준비의최종코ㅡ스

울고 못고하는중등학교입학시험도 아프로 한달될락말락하게 절박햇습니다. 허수한날밤나송가리지안코 책상에 머리를 파뭇고잇든 애의뒷모양을 바라보며 비는 어버이의 마음은 누구나일반일것입니다. 그건 그러타하고 얼마 남지안흔 날짜에자ㅣ어떠케 공부를 시켜야할까요 입학시험경기장에나설아동을위해서 부모는어떠케응원을해야할겐니까

장거리의 경주라면지금은「마지막 한바퀴」찌입니다 대세는지금에 벌써 결정되엇스며 더어찌할도리가업다고 그야말로운을하돌에 맥기다시피는 한는부형이게실지모르나 최후의 오분간、라스트ㆍ헤비ㅣ라말도잇고 폴아메이르러서는 날러틀디시피하는수도잇스니좃 응원대인 어버이들도 기를 죽이지말고 최후까지 응원을 계속해야할것입니다.

그럼 응원은 어떠케해야할까「뭐 암만볼고난대자 틀렷서」속으로는 이런소리를 할지언정 그는지를 선수되는 학생에게는 절대로 보여서안됩니다. 운동회때의 하부형들의응원을보면 대세가 작정된것도「괜차라! 염려말고 뛰어라!」 이러식으로 편달을하지안습니까? 입학시험준비에도 이와똑가튼 격려가필요합니다. 부형이 락심하면 화생은 더한칭 풀이꺽기어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게되고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할것은 현대사회에잇서서는 입학시험이란는것이 피할수업는 인생의 생존경쟁의 시초이니까 이를테면볼고서 텀버드러세상엽는일이 엇드란도 압장서게해야되겟다하는 의기를 가저야하겟지만 아이의장래를 그르칠지도모르겟다고하는 방향으로 아이를채질해서는 안되는사실입니다. 즉그아이의 근강두뇌재능기호이런것을 무시의 처지만가지고만족을할때서는 그아이의 장태에비극이잇기쉬움것이므로 이점을반성해야할겐니다 올봄의 중등학교입학시험과목이 국어、산술뿐인데 어느것이고 다잘못한다고 더퍼너고 꾸지람을해가며를복기만하면 그아이자신은 생각하기에 자기를 무능하고아모짝에도소용업는 인간으로생각해서 비관하는수도 잇습니다 그러추 부형은 먼저 자재의자질을파악해야합니다. 혹은 음악을 혹은 무용을 혹은 도화 수공… 어느편에 특재가잇나하는것을알아가지고 그것을 그아이의 장래의보물로삼아 그쪽으로 빼더나가도록해야할것입니다.

그아이가 모든데에 재조가업고 기호가업드라도 소위저능아가아니바에는 몰론한것만으로도 전도에만명이잇다고 볼수잇스며 또하편으로는 소위「굿게괴는것」이라고해서 재능과기호가굿되어 어려서 얼른드러나지 안는아이도잇스니 이점도 부형되이는 고려할필요가잇슬것입니다 도하면으로는 아니할말로하는 눈아페 당장결과만이아니라 학교를 다니지안코도 대성하는사람이잇지안읍니까 자식의 일생의문제를 넓이 멀리 생각할기회라고 생각할것이라 어쨋거나 입학시험에 대해서 생각할것입니다.

中篇小說

女人命令【46】

李善熙 作　崔根培 畵

거리의동물(十三)

「자ㅣ 김선생 차례데」

안나는 외쪽손에다「가루다」장을 부채처럼 쭈ㅣ 펴들고안저 열이 벌컥올라 드려다보고잇다.

「네? 내차례인가요?」

김의사는 깜작놀라 자기도한쪽손에 펀「가루다」장을 드려다보며 꿀든다고 두리번거렷다.

그다음이 숙채차례ㅡㅡ세사람은 지금 안나의 방에서「가루다」를하고잇는데 안나하나만 이작난에 열심이고 김의사란 사람은 생각이 전혀 딴데가잇고 숙채는 또숙채대로 그저 남이하니까 따라서하는 정도로 별로 흥이나지안혓다.

「곤하실텐데 인제 주무시죠 너무 괴곤한건 금물이니까요」

「나? 괜찬허요. 아직 밝지도안헛는데 밝은담에 자도 넉넉할껄」

안나는 이불을 잡아다려 허리에 두르며 비스듬이 들어눕는다. 대체 이안나는 안저잇는것보담 늘 드러눕기를 조와하는 성미다.

「우리 그럼 이건 그만두고술이나 좀먹으까?」

안나는 이말에 누가 동의를한는지말든지 벌떡이러나 나가드니「위스키」병을들고 들어온다. 두사람은 술을먹고 숙채는 파자를 깨물엇다.

안나가 나지화장을 지우고얼굴에「콜ㅣ드」크림을 담북발러 번질번질한후에 술기운이 악간올으니 그보리빗 얼골이 그의 생활의 축도(縮圖)와가티 방불햇다.

「나는 코가납작해서 팔자가어모양이야하하」

요즘 안나의 방으로 자조놀라오는 김의사란 사람은 다른사람이아니라 숙채가 어떤신사를 유리잔으로 얼골을 때리든 밤 숙채가 청해다 치료를 하든 바로 이웃에사는 그의사엿다.

그날밤일은 시굴서 돌아온안나를 대단히 노하게하엿스나서로의 체면과명예를 생각해서일체 입밧게내지안흔채 김의사의손에서 치료를바덧다. 그리하야 일개월후에는 그사나이의 얼굴에서 "바친고"조각을 전부떼엿스나 그러나 바람팡낼수가잇섯는데 그러나 바람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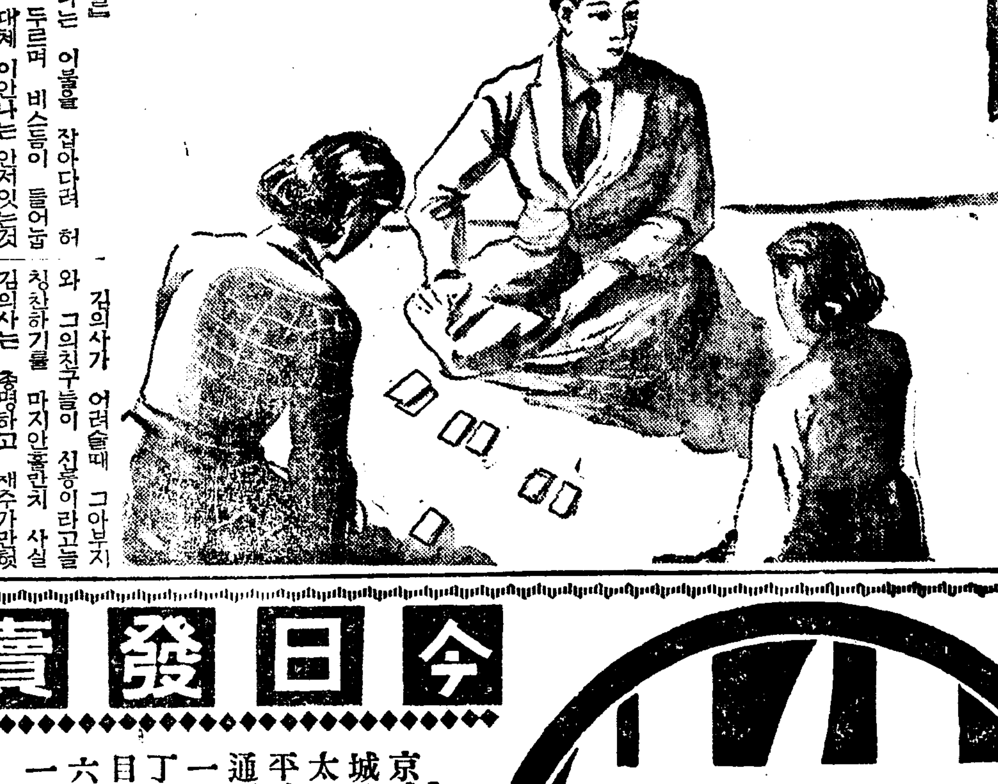
대쌔우에 너더푼가량의 상처는 기어히 쉬가티가는 흉을내고야말엇다.

이러한일이 잇슨뒤에 김의사와안나와 숙채사이는 대단히친근해젓다. 전에는 지척이 천리라고 한이웃에잇스면서 몰랏섯스나 지금은 밤만되면 김의사의 모자도안흔 모양이 안나의 집현문으로 바쁘게 사라지는것이다.

이김의사는 지금 병원을내고잇스되 아직 장가가지안흔 홀아비라고한다.

그래서그런지 그가 개인병원을내고잇는 그조그마하고 네모반듯한 붉은벽돌집이 떡은 적막해보히고 기틀끼가 풀지못햇다 김의사의집은 충청남도××군××면 ×××리 김진사댁이라면 먹을것도잇고 행세도해서 대가족에 드는집이고 김의사는 그집의 구대독자다.

「그놈 총명하거든」



김의사가 어려슬때 그아부지와 그의친구들이 신동이라고들 칭찬하기를 마지안홀만치 사실 김의사는 총명하고 재주가만헛다.

이러한 그는 또그신경질의하이얀 얼굴에 항상무엇을 빨어드리라는 정열이잇섯다.

어느날 안나는 김의사의게자기를『아즈머니』라고 불르라햇다. 이건 젊음을 파는 안나의입엔 격잔흔 변동이엿다.

「이바요 김선생ㅣ인젠 날더러 아즈머니라고해요. 나두 이만나이면 김선생께 아즈머니소리두 드를만한데…」

사실 안나는 어거의사에게아즈머니소리를 듯기는 좋일른다 남이 어만치 얼른게보면 안나자신은 여간얼른것처럼 고집하지안흘것인데 웬일인지 안나는 그다지 액기는 자기의 젊음을 더빨리 걸러서 김의사에게「아즈머니」라고 불러달라는속을 알겟다

「네ㅣ그러지요」

김의사는 얼굴이 벌개지면서 숙채를 힐긋본다. 안나는 유리문턱에 걸터안저 마당 한복판 깻깻한 양지쪽에 무심히 서잇는 두사람을 바라보며 가만히 우섯다.

이것은 어느날 오후ㅡㅡ수도원과가티 적적한 안나의집 뒷마당에서 세사람이 함께 작난을 치고난뒤다.

今日發賣

女性

三月號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京城太平通一丁目一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制服을벗는智識女性에게

▲教育界로나오는女性에게…李萬珪
▲社會事業에뜻을두는女性에게…兪珏卿
▲家庭으로드러가는女性에게…李克魯
▲職場에서의體驗을參考로몃말슴…韓洞信

문경이 거센 社會로 制服을 벗고나설 新女性軍들에게 주는 先輩先生님들의 간곡한부탁입니다。家庭으로드러가는이들에게ㅡ教壇에서ㅡ社會事業하는일터에서ㅡ職場에서ㅡ그들은 이러케 부탁하십니다。일즉이 父母에게서도 先生님에게서도 드러보지못햇든 귀한말슴『女性』誌三月號가 校門을 나스는 여러분께 선물로 오직 실너드렷습니다。

入選實話「분 이」……임 영 창

判例에나타난女性動態(女性의强姦)……金汝植

三月創作

中篇小說 거리의牧歌 李孝石 (鄭玄雄畵)
短篇小說 童話 蔡萬植 (崔根培畵)
短篇小說 逆說 崔明翊 (金奎澤畵)
中篇小說 世紀의花紋 金南天 (鄭玄雄畵)

表紙・挿畵…鄭玄雄
挿畵……金奎澤
挿畵……崔根培

(畵報) ▲淺春 ▲歸帆 ▲制服을벗는才媛들……(梨專、梨保、京保、中保) ▲봄볏을차저서

▲女性界消息 ▲珍多奇多 ▲海外通信 ▲主婦備忘帖 ▲옷지랍시다 ▲알어둡시다……

宮中에쓰이든手母를찾어 李栄俊博士의家庭風景 一記者

(詩) 나와 나타샤와 힌당나귀 (文) 白 石 (畵) 鄭玄雄
(畵) 戀文 (文) 金珖燮 (畵) 金奎澤
(報) 줄 업 는 거 문 고 (文) 張貞心 (畵) 崔根培

쌩깐 거ㅣ틔 雨雄의 産兒制限可否論爭 各界諸氏

最近流行의女性衣裳批判 東山譯

朝鮮婦人과衣裳 李淑鍾

科学과朝鮮女性 鄭槿陽

(設問)
一、맨처음서울오실때에어떤사람새를하섯습니까。
二、서울나려슬때의첫인상은어햇섯습니까
三、시시굴때기로단연첫번실수는무엇이엿습니까。
徐光霽・李克魯・金晉燮
李善熙・金煥泰・李泰俊
李石薰・白石・金南天

◉ 빼ㅣ토벤과 不朽의聾者(樂聖의私生活) 洪蘭波
◉ 處女바람(實話) 申鼎言

◆醫學上으로본男女別……栗山生
◆너무나三月的인風景(隨筆)……金晉燮
◆兒童과玩具와그選擇의標準……金與濟
◆美容과榮養……吳淑根
◆男女兒童의寢服……任貞爀
◆兒童口腔衛生과虫齒豫防……金詰庸
◆月夜의悲曲……李應淑
◆聲樂鑑賞講座……金管

結婚適齡期處女들의理想男

梨專、梨保 京保、中保 上級生總動員

結婚을 압둔 미쓰・코리아들은어떤 男性을憧憬하나? 여기에 梨專、梨保、中保、京保칼레지걸들에게 그들의「理想型의配偶者」를調査해보라! 現代女性들의 結婚觀을 打診한 興味잇는 記事입니다。特히 未婚男性들은 勿失好機必讀하라! 그들이 원하는 男性들은 어떤 年齡은? 財産은? 容貌는? 趣味는? 敎育은? 어느 程度를 원하나? 그들이조하하는 男性들의 理想男은 하나? 現代女性들의 그「理想男兒」 축에 一驚하거나 되기어려우라! 天下靑年들이여 通하여 內容을읽어보라!

学芸

生産力과藝術

巴朋生

社會의生産力이 發展하면 할수록 그것과竝行하야 藝術도 漸漸高度의 發展을 期待하고잇는냐? 하는問題는 여러가지問題를 惹起시킨다 市民社會에들어와서 各種의 物質的生産力이 發展한것은 事實인데 이社會는 果然藝術의發展과 高度의價値도實來할수잇는냐? 하는 疑問가 든것도 이것과關聯된問題이다 이에對하야 『經濟學批判序說』은 다음과가티말한다 『藝術의境遇에는 그의 發達의特定의時期가 社會의一般的發達 다시말하면 社會의物質的基礎의發達과 全혀一致하야잇지안흔것을 알수잇다』『그重要한形式의 어떤것에잇서서는 藝術的發達의 영혼階段에 잇서서만可能하다고까지 말할수잇는것이잇다』 그러고 다시 『剩餘價値學說』에서는 이러케 말하얏다 『예컨대 資本主義的生産은 精神的生産의 部門 파는 敵對的이다 藝術及詩歌가 그것이다 이것을理解하지못하든에 일죽이 레싱에依하야 嘲笑꺼리가된 十八世紀佛蘭西人들의 奇妙한案出이 생기게된것이다。─우리들은 機械工業等等에잇서서 古代人보다 훨신進步되어잇는데 何故로 우리들이 …… ? 이리하야 『일리앗드』 代에 『헨리앗드』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러한結果를내어는 根本原因은어데잇는가? 그와그의勞動者의分析은 大槪이러하다

古代社會는 生産의量的方面과質的方面과를一致시키여그곳에서行하여진分業은 人間의個性을 分裂시키지아니하고 그것이또한 藝術을爲하야 豐饒한土壤을 提供하엿는데 市民社會는 肉體的勞動과 精神的勞動이 完全히分業化하야 人間의個性은分裂하고 精神化하고 偏重化하엿다。分業의古代的影響에잇서서는·古代及中世에서까지도 人間의活動의 모든種類、모든人間的技能과才能은아직도 資本家的의 抽象的인 量的原則에 支配되지안헛다。 唯一의 利潤을 追求하는 才能以外의 모든技能과 人間的才能을抹殺해버리는 藝術的이고、技術의支配로부터 아직도自由로웟다。이리하야 이것이나로써 벌써 古代希臘藝術의 高度의發展을 原因的으로 說明할수잇는同時에 市民的生産關係가 支配하는 社會에서는 藝術이 不可避的으로衰退하지안흘수업스리라는 原因도說明할수잇다고 그들은 말하고잇다

二月創作評 (二)

取材範圍의固定化

嚴興燮

金君은 多作家가 아니라 寡作家다 그러므로 그의作品을 어더 읽기는힘든다 寡作을 하는 作家의 作品은 多作을하는 作家처럼 讀者의눈을 걸지못할넌지모르나 多作하는사람에 比하면 比較的 失敗가적은것이事實이다。

그러나 金君은寡作을하기爲한 寡作家가아니라 그의本業이 評論인만큼 評論의餘業으로써 作品을 쓰지안나? 나는늘 그러케解釋해 나려왓다。

그러라고해서 金君이 作家될 資格이 업다거나 그의 作品이 文壇水準에 떠러진 作品이란것은 아니다。

이點은 金君이나 讀者에게 誤解사기쉬운點임으로 미리 밝혀두고저한다。

입으로는 큰소리 탕탕 해노코도 實際에잇서서 自己가 한번作品을써보면 自己의 理論대로 못되는境遇를 가장만히늣기는사람은 評論家다 評論家가한번作品을 쓸때 비로소 作家의 苦惱를 發見할수잇고 體驗할수잇는것이다。

그런데 金君은 그러한 理論에만 本業을가진것이아니라 作品을쓰는데도 一家를 이루고잇다。

지난날 歷史的傳統을 자랑하고 빗내이든 『물』이라거나 『工場新聞』의 作者로 서의 金君이『少年行』이라거나 『蓄池鏡』이라거나 『祭退膳』가튼 作品을 썻다고해서 是非할 사람은업새와선 업을것도事實이다 그러타고해서 前者가 傑作이며 後者가 駄作이란말은아니다。

어떤 한時代가 어떤 한時代에로 或은發展되고 或은崩壞되고 或은 退步될때 웬만한 時代的振幅과 웬만한歷史的傳統을 가진 作家이면 그作家의 作品을通하야 그時代의 그社會의그民族의 그림자를 찾을수잇는것이다。

그러타면 八年 前의 金君의 『물』과 『工場新聞』等의 一聯의作品과 最近의『少年行』『蓄池鏡』『祭退膳』等의 一聯의作品을通하야 우리는 여러번變遷되여가는 어떤時代의 그림자를 차저낼수잇슬것이다。

『蓄池鏡』은 現下朝鮮의 中產階級社會가걷고잇는 運命의一面을 그리려한作品이라고 作者가 말하고보면 너무 그림이 稀薄하고 貧弱하니까 좀더 詳細를 조사해보자。

作中의 主人公 朴경호는 中產階級家庭에태여난 靑年이다。그는過去 時代的思潮에 휩쓸려 한때 監獄사리까지 한사람이다 그가 至今엔 阿片中毒者로서轉落되고 陳腐되여버렷다 이런事實은 흔히 우리가 現實에서目擊하고잇는일이다 過去엔 運動者이체하든 사람으로 至今 朴경호以上으로 陳腐한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發見할수잇는것이다。

오히려 朴경호는 自己個人한사람만의 享樂을爲하야 그것이 暗黑한 時代的苦惱를 잇기爲한너무나 感傷的인 自殺的方便이엿슬는지몰으나 自己를 自己가써히엿다고할수잇는點에서 愉悅感까지 늣길것은 엇지만 自己가써기위하야 남까지써히려는 醜面皮、無恥漢、逆行兒들이 亂舞하는꼴을 어찌 이作家는 蓄池鏡속을通해서 좀더 詳細하게보지 못햇든가!

이作家는 그取材에잇서서 언제나 直面한 現實에서 取材하되남이 發見치못하는 가장 時代的振幅을가진 現實의 一面을 取材하는點에서 우리들의 好奇心과 魅力을 끄을지한다。

『蓄池鏡』도 그러한 時代的振幅을 보여주는 이作家의 作品가운데하나다。 그러나 이作家는 取材範圍가 固定되여잇지나안나 또는 아프로 固定되여버리지나 안흘까를 讀者에게 疑心나게하는 作家다。

取材範圍가 固定되엿다는말은 作風에變化가업다는말과 別差異업다고 생각해도조타。

一年前에쓴 作品도 두달前에쓴 作品도 모다 비슷비슷한事件에서 取材하는것은 雷同平凡한 技巧를가진 作家가 自己一聯의 作品에 對하야 어떤 系列을 세우기 爲한 努力이라거나 또는 手段 乃至 固執으로 볼수잇슬는지는 모르나 어쨋든 作風에 變化가업다는것은 그가 뛰여난 大家인 境遇以外엔 進步가되든거나 進步업다거나 그러치안흐면 退步한다고 볼수박게업는것이다。

便宜上 昨年十月에 發表한 이作家의 『祭退膳』과 이번『蓄池鏡』을比해보면 우리는 滋味잇는 事實을 發見할수잇다。

『祭退膳』에도 『蓄池鏡』처럼醫師가나오고 妓生이 나오고 病院이나오고 한쩨쩨짜리 알골이 나오고 일흠까 『朴경호』 그대로 나온다。

그러라고 이作品이 『祭退膳』의 續篇이나 또는그와 類似한 作品이라고는하기실타 다만 그作風에 놀날만한 變化를 찾기에 힘든다는것이다。

作家는 그取材에잇서 自己體驗의 조고만世界에서만 彷徨할게아니라 때로는 좀더넓고 깁고 새로운것을 自己가 모르는것을 알려고 하고 써보려고하는努力과 苦心이 잇서야 할것이다

그러한努力과 苦心이 바로그作家의固定化되려는 作風에 變化를가저오는 原動力이될것이다。

作風에 變化가生起는것은 그作家가 그만큼發展되엿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다

新刊紹介

▲바다의慕情 李[illegible]文藝集 (內容) 黃昏의心情、思索의部林、靈魂의歌聲、그리운追憶、暮春의死體、나의無限川邊、寶宵의悲歌、情熱의暴雨、바다의影形、憧憬의浦口、自然의頌歌等外數篇 發行所 京城府本町四丁目五 時人春秋社 振替京城二七〇六〇番 定價一圓四十錢

▲朝鮮醫報 第七卷第四號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京城세부란스聯合醫學專門學校病理學敎室內 朝鮮醫學會 振替京城一六八二二番 定價五十錢

▲農民生活 二月號 平壤府[illegible]崇實專門學校內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二番 定價十錢

▲中央時報 第一二三號(週間)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中央時報社 振替京城四五二二五番 定價一部八錢

▲更生 二月號發行所 廣島縣京橋町日本赤十字社 廣島支部京城療養院內 更生社 振替大阪七七五三一番 定價十五錢

▲農業朝鮮 二月號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의一 大同出版社 振替京城一〇二二九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基督敎報 第一四大號(週刊)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拓殖情報 二月號 發行所 東京市芝區白金三光町二七六 拓殖情報社 定價二十五錢

▲朝鮮經濟時報 第四十三號 發行所 朝鮮經濟時報社 購讀料一部二十錢 販賣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三九 朝鮮經濟時報社 振替京城二三三二四二番

●隨想●

마음이짓는悲劇 (四)

李燦

勿論 鑛火야 그助手氏의 失手도失手려니와 斯道에 無智한 우리가 드러도 귀가짱깃할만치 그럼직한 化學的因果關係가잇서 떤물事에서난 爆發지럼 그러케 鑛火한바겟지만 그리고 車의全燒라는것도 그所以緣의如何와乘客의損害와 迷惑의 大小는 莫論하고 이地方에선 그다지 稀貴한일도아니매 다시 생각을되씹을 興味도업스나 웨 하필 허구만흔날 허구만흔사람과 허구만흔 自動車중 바로 그날바로 내가탄 그車가 鑛火全燒하고또한 그속에서 나가는 살어죽으니만못한 爲人이 九死一生될어덧든가생각하면 거긔 運의奇異를 痛感치안흘수업는바이다

이곳北靑엔 近者 金鑛救富가 續出한다 五十萬圓 百萬圓은이젠 귀에 신기치안흘程度이고新聞寛傳이지만 한個도아니요 七億엽마云云하는 足히 드러도아칫하면 卒倒될未免한 巨富까지 될나면 어렵지안흔 形便이다 그러나 그들一聯의 致富者가 제아무리 만흔 수효라드라도 보다압서기 몃해젼부터 斯道에 精通하는 實로 至誠하야 感天이라도할 有象無象의 探鑛쟁이수효에 문히 비길바아닐것이다。 하건만 웨 여기 萬年쓰까다비와 저들의 差異가 생기는것인가 어도運이라면 大成諸氏의自慢을 적히 거슬너볼지모르나 그러라고 딴 解明의 方途업슴을 그들과함께 우감으로나 대이는수바게업다

古書에 時來風送登王閣이오 運退雷轟天福碑라하엿스니 運이란 예적에도 사람과함께 잇섯든모양이요 또한 運의 神秘를 切感한者 오늘의 내게만 머물지도안흔모양이다。

運 萬一 그것이 말만흔 시어미가티 언니때 어느곳이고 숨興하야 世事一切가 在於其手라면 우리는 얼마나 幸福스러울것이냐。 僥倖은 計劃도 피스비린 苦悶도해야 所用업슬것이매 활必要업고 同時에우리들의心身을 이처럼 괴롭힐것업고 또로히 每夜長歎와 四時春風이 正當할것이니 實所謂 現世의 武陵桃源이 이아닐가하고십다。

만은 運은 奇異한것 그들을시 게을른 에고이스트가티 오랫동안 제房에 들려백여 코빗도아뵈다가도 一朝 제氣分내키는때 제氣分내키는곳에 忽然히 나타나 全혀 衆意를 無視하고 또한 제氣分대로 處事하고가는것 그러므로 그는 기다려오는것이아니고 오지안는것이아니고 運은 正히 우리들의驕心바를 제任所로 定하고잇는듯십다。

[illegible]어가는 自己의 一面을 闡明키위하야 運은 그러면 首陽山中에 白夷叔齊의 傳說을 남기엿든가 同時에 後代의 白夷叔齊類에 對한 한개의 警告……참탈 얼마나 奇異하고도 用意周到한 運인것인양。

(一九三八·春·於北靑)

小文庫

俚諺의訛誤

上下寺不及의類

袋山生

어느 나라나 俚諺이란 大體로 口碑에依하야 傳承되는 것이겟지만은 더구나 朝鮮서는거의 全部가 口碑로서만 나려오고잇다。그러니까 그中에는 訛傳과 誤傳이 업지안하니 위선 『내일 바빠 한데 방아』가 『한데스방아』로 된것도 그 조흔例의 하나다。아니 『업은 애기 삼년 찻는다』는 말이 잇는바이 삼년을 찻는다는것은 아무래도 좀 우습지 안한가。 松南雜識에 『負兒覓四面』이라고記錄된것으로 본즉 『삼년』은 『사면』의 訛誤됨이 分明하다。또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잇는바 여기서 꼬리가 길다는것도 좀 어색하게 들리지안는가。그역시 松南雜識에는 『鼬長必踐』이라고 적히어 잇스니 꼬리는 고빼의 訛誤됨이 事實이다。그이외에도 言語의 變遷習俗의轉移 後來에이르러 그出處가 未詳해 집에 짤아서 말에는訛誤가 업다고 하더라도 그 意義에 對한 解釋이 歪曲되는수도 드물지 안타。 『終夜痛哭不知何마누라喪事』의 마누라는 一般官長의 尊稱이엇는데 지금들 어머니나 할머니로 解釋하고『벗딸아江南』의 江南은 漢土를 가르친인데 지금들 普通의 江南으로 解釋하는 類다。그러나 우리말로 된 俚諺보담도 漢字로 된 俚諺에는 訛誤가 한층 더 만타。例컨댄 乾木水生을『강목소생』이라고 말하고『人事不省』을『인사불성』이라고 하는 等이다。그중에서도 재미 잇는 이야기를 하나 적어 둘까。 녯날 忠州地方에 한산스골에 두절이 잇서서 上寺와 下寺라고 불럿는데 그 절에서 키우는 개를 上寺에서는 下寺에서 먹인줄 알고 안먹이고 下寺에서는 上寺에서 먹인 줄 알고 안 먹이기 때문에 『두절스개』란말과 한께 上下寺不及이라는말이 생긴 것이어늘 지금들흔히 文理를 닷게 쓴다고 해서 『上下事不及』이라고 고치고보매 『두절스개』란 원뜻과는 千里萬里로 멀어저 버리게 되는것이다。그러한 類로 몃 가지를 더 들어 보자。識字憂患은 蘇東坡詩의 人間識字憂患始에서 나온 것인데 『憂患』을 或『爲患』으로 말하고 八不就는 骨牌의 八不就牌에서 나온것인데 『不就』를 『不出』로들 通用하고잇다。그러케 訛誤된 類로는 『하늘이 문허저도 솟아날스구녁이 잇다는』것이거의代表다。

音의 相似로 或은 소가 나올 구녁이 잇다고도하고 또或은 소자(孝子)나올구녁은 잇다고하야 가지각색으로 말하고잇는 것이다。

海西記遊

海州로가는길 (二)

朴泰遠

午前열時五十五分發車로 海州로 向한다。밤새로 날이 갑작이 또 차저서 客戶를 密閉한 車室안에 空氣가 조치못하다。

어제 土城서 타고온 까소링車는 매우 不愉快한 物件으로 坐席이 電車나 한가지로 좌웅을 동지고 서로 向하여 안케되엿슬뿐 아니라 그것이 또窮屈히 적고 지저분하엿다。그러나 오늘것은 이와는 매우 달러비록 가튼 汽動車이지만 그을리 기는 하나 제법 [illegible]내는 黃海線車를 단 이를테면常識的인 汽車다 이車에는 바루 菓子等屬을 들고 다니며파는青年조차 잇섯다。

남의 年齡을 알어마치는것에 익숙지못한 나는 그青年의 나이를 二十으로부터 二十六七까지사이라고 斷하여 두는것이 穩當한 일일께다。제법 端正한 몸을 가진 그는 또한 그 天性도 溫順한 靑年인듯십엇다。그러나 이車안에서는 商賣이모도 利益이업는 팔어주지안는모양이다。마침내그는 한여페다자리를 두어두고 저편자리에 안저잇는 한四十바라보는 사나이에게로 갓다。

『이번엔 어듸까지 가십니까?』

『웅 海州、新聞社에 들러서、沙里院으루해서 그담에新京까지 좀…』

그는 그러케 밝것 쏘다니는것이 職業인 人物인듯시펏다。

『저어─大阪까지 가려면 汽車간만 해두 만흔돈이겟죠?』

『웨 大阪 가구시픈가?』

『네ㅣ。허지만 어듸 돈이 잇서야죠?』

『뭘。그냥 가기만 한다야 한 二十圓잇스면 되지、大阪까진 가지。그래 가서 職業作定인가?』

『일없죠。뭐든지 헐죠。大阪은 [illegible]죠?』

『그야 크구 말구…。자네 京城 가봣일 잇나?』

『네。京城 참 크두군요。』

『허지만 大阪은 그 三갑절 四갑절이거든。京城쯤은 어림업네。』

『어이 그래요? 그러케 커요?』

車밧게 뒤로 날으는 煙氣를 물끄럼이 바라보며 靑年은 暫時 생각에 잠기지 안흐면 안된다。나는 그의 옆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앗다。

海州驛에 나리는길로 그곳에 나와잇는巡査에게 朝鮮日報支局을 물으니까 그는新聞 생각하는 모양이드니 마침내 絶對의 自信을 가지고 暢아며 容易기다리고 잇는 『뻐스』를가르친다 그것을 타고 支局前所 압까지 가서 北쪽으로 뚤린길을 얼마쯤 올라가면 밤은空便에 찻는집이 잇스리라 한다。

支局事務所아페서 뻐스를 나리기에미처、女車掌에게 다시 물엇드니、그는 運轉手와 한참을 相議한뒤에、亦是 北쪽길로 올러가면서 밤은쪽便을 살피는게 조흘것 갓다고 일러준다。나는 매우 細密하게 살펴보앗스나、찻는집은 업섯다。그냥 無作定하고 걸어가면 山우에까지 이르게다。나는 마침내、自轉車를 라고 나려오는 한男子를 發見하고 그에게도 길을 물엇다。

그는 고개를 한참이나 기웃거리드니、문득뒤에서 걸어오는 또한男子를 돌아보고

『저어、어제 우리가 水道 고치러 갓든집이 게가 新聞社 아니든가!』

『글세!、아마 게가 新聞社지。』

그는 다시 나를 向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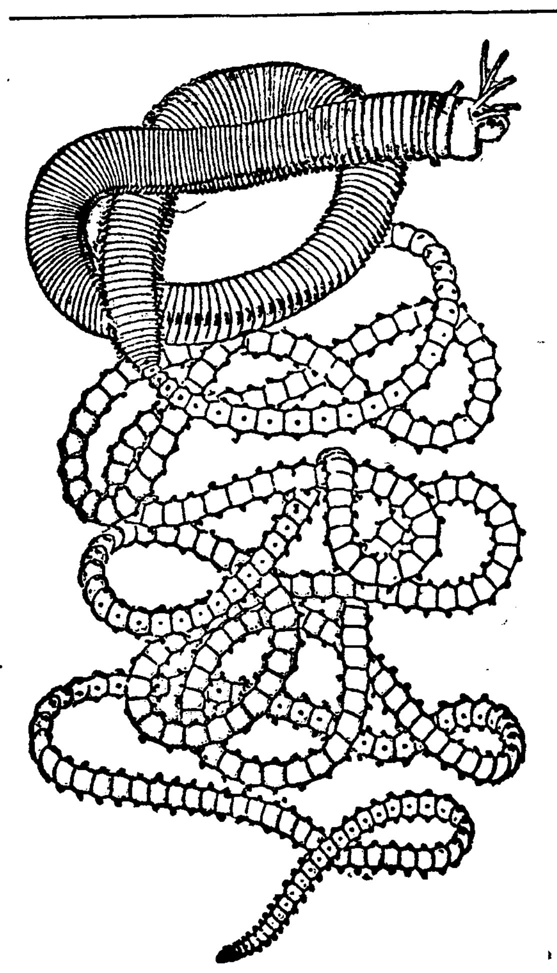
『그럼、저리 가시면 됩니다。이길로가시다가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하여보니 그들이일러주는대로 갓드면 或은 廣石川近處로나가 그一帶를 한참이나 헤매돌지안흐면 안될번하엿다。마츰 支局長을 찾아는어룰 맛나 그의案內、바더 나는 쉽사리 그곳을차젓다。다만支局은 驛에 나왓든巡査가일러준곳과는 얼토당토안흔 位置에 잇섯다。그러나 따지고보자면 女車掌이나 運轉手까지도 나를 길로引導하여 준것은 아니다。오히 그를 물으게 海州支局이 四五個月前에 自己마음대로 移轉을 갓을 그뿐이다。

科學

月의盈虧를딸어오는 生物의生殖現象 (中)

一記者



팔로로는 一年中 特定한달의 一定한 月齡에 依하야 正確한 時를 떠노코 行動하는 듯이때를 어긋남이 업시 海上에 떠올라서 無數히 生殖群泳한다는 것이다。

제일 몬저 팔로로現象으로알려진 것은 퀴지島와 사모아島 附近에서 만히 産出되는太平洋 팔로로다。그後 同樣의 現象이 大西洋 팔로리다 附近에서 도 發見되야 大西洋팔로로라고 불럿다。

팔로로의 元祖라고할 太平洋 팔로로는 太平洋의 사모아와 뛰지島沿岸의 珊瑚礁中에 孔道를 맨들고棲息하는 버러지인데 이 버러지는 언제나 十月及十一月의 滿月되는 날로부터 세어서 여드레째와 아호래째되는 二日間 밤이 下弦되는 날의 이른 아츰 해가 뜨기前이면 穴居生活을 하든 버러지의 몸의 後부이 頭部에 부터잇는 前部로부터 떨어저서 海上에 無數히 떠올라 가지고 生殖物을充滿하야 잇는몸이의 中만이머리도 업는데右往左往 헤엄처서 돌아다니며 結婚舞蹈를 展開하야 雌雄서로生殖物을 海中에放出한다。퀴지島의 土人들은 이 팔로로를 無上의珍味로서 알아서 每年이버러지가 出現되기를 苦待하고잇다。

퀴지ㅣ島의 土人들은 曆과가티 正確하게 돌아 오는 이버러지의 出現을 豫知하는 方法으로 첫재 그들이 『아로아론』라고하는 豆科植物의 붉은 꼿치 괴기 시작하면 팔로로가 나타나게될것을안다。

또 그들은 『시ㅣ시ㅣ』라고 하는 植物이 開花되기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엿다。그 꼿치 핀뒤 달이 새벼녀케 水平線으로 나오는 날을 따저 노흐면 그로부터 열흘 되는 날에 팔로로의 群泳을 보게 된다고 한다。또 사바이島의 土人들은 마리오라고 하는 陸蟹가生殖을 爲하야 山으로부터 바다에向해서 行進하는것을 보고 나서는 그뒤 사흘째 되는날 팔로로가 出現한다는 것이다。그以外 거북의 産卵時期라든지 또一種의 小魚가 沿岸에 나타나는 時期等을 따지어서 팔로로의 出現日을 定하는 것이다。

太平洋팔로로는 前述한바와가티 十月과 十一月의 滿月後八日째 乃至 九日째 되는날 群泳하는데 그 두달中에는 十一月편이 十月에 比해서보담 훨씬 群泳個體가 만타。퀴지ㅣ島의 土人들은 十月의 群泳을 칼루로·라이라 (적은 팔로로)라고 하고 十一月의 群泳을 팔로로·레뷰ㅣ(큰 팔로로)라고 해서 區別한다。

그런데 土人들은 팔로로의群泳이 가까운줄 알면 老幼男女가 總出動해서 배를 修繕하고 網을 맨들어 를뿐아니라 그前날밤 酒宴을 베풀고 東天을게 놀다가 黎明을 기다리어서는 별 비치는 夜空아래 三三五五 배를 띄워 바다으로 나온다。그들은 먼저 바다人물을 직어서 냄새를마터가지고 그棲息場所를 차저내서는 그곳에서 群泳을 기다리고 잇든것이다。

(사진은 팔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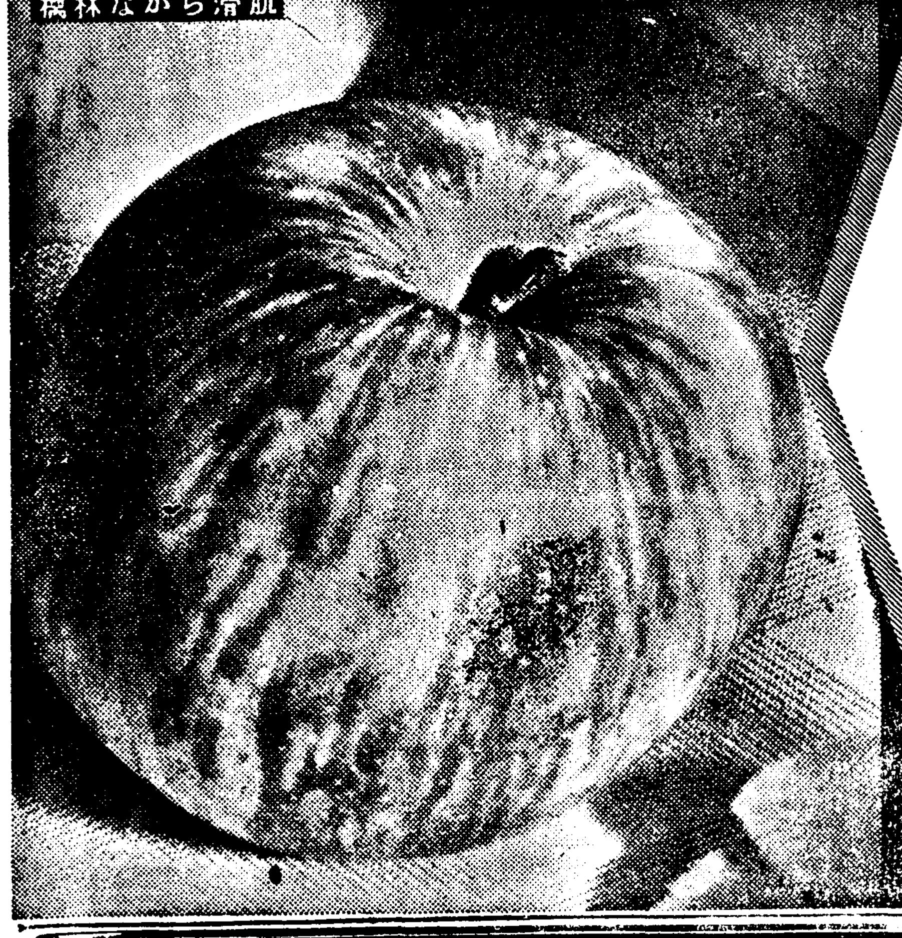
今春各學校入學案內

([illegible])

大東商業學校
一、募集人員 約五十名
一、申請期日 三月二十日까지
一、試驗日字 三月二十一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口頭、算術

東新中學校
一、募集人員 約百五十名
一、申請期日 自二月十日至四月三日
一、試驗日字 自四月四日至四月五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二四】



肌滑らかな林檎

肌の目の荒い石

新鮮한若肌로!

여문

肩의것모양가티 가칠가칠해진 살결을 新鮮한 果實의 겉결가티 맥그럽고 光澤잇는 若肌로 蘇生시키는……
레도ㅣ구레ㅣ무

軟한

若肌 健康美에 빗나는 若肌를 따뜻한봄도 가차워진 이시절에……
레ㅣ도구레ㅣ무로 蘇生시켜주십시요
레ㅣ도구레ㅣ무의굉장한 效力은살거츰、잔주름、느려짐가튼 살결의障害를一消해서……
반드시 歡喜의 健康美를당신과 約束하리다!

レートクレーム

三共 SANKYO

咳에痰에
ブロチン
부로친
實로理想的인鎭咳祛痰劑
副作用업고·應用安全·
不快味업고·服用容易·
獨特한作用·効果佳良·
說明書進呈
末 50瓦 1.00
錠 30錠 .40
液 100瓦 .85
外에大量入잇슴

消化不良에
タカヂアスターゼ
다가지아스타ㅡ제
十餘種이나되는消化酵素를包含하고·强力한複合消化作用을營爲함
効力은恒常一定永久不變하야 信賴할수잇슴·모든點으로보아一般이唯一無二라고稱하는 消化劑
모든胃腸障碍에應用되여서食物의 消化를돕고榮養의增進을企圖함
說明書進呈
錠 30錠 .40
100錠 1.00
200錠 1.80
外에粉末잇슴

榮養增進에
オリザニン
오리자닌
人體必須의榮養素
비타민B의世界的始祖
脚氣의特効藥으로서알려진外에肺結核·肋膜炎·腸窒扶斯時等의榮養障害·食慾不振에또姙婦·産婦의榮養保全·便秘·姙娠嘔吐或은疲勞의防止와 恢復等에널리 應用되어良好잇슴이알려졋다
說明書進呈
末 30瓦 1.30
錠 50錠 1.20
液 100瓦 1.60
外에大量入注射液잇슴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春香傳 上演準備次로入城한 村山知義氏와 一問一答

—文壇、劇界에서同氏歡迎會開催—

東京 新協劇團에서 次期公演으로 春香傳을 上演하게되엿다는것은 既報한바이지마는 이제 그公演을 압두고 衣裳 小道具 習俗等의 考證、準備次로 入京한 演出家 村山知義氏를 그宿所인 本町호텔에 訪問한 記者와의사이에 다음과가튼 一問一答을 試하엿다。

記 春香傳을 레퍼ー토리로 選擇한 理由는 무엇입니까?

村山 본래부터 朝鮮文化라든지 藝術에 對해서 남달리 興味를 가지고 잇섯는데 이전에는 東京만해도 三一劇場이니 學生藝術座이니하는 劇團들이 잇서서 거기서 上演하는것을 재미잇게 구경도 하엿고 또 여러가지로 補助도해왓는바지금은 그러한 劇團들이 업서지고보니 東京에잇는 조선사람만도 六萬名이나되는데 뭐 구경할만한것도 업슬뿐해서미리부터 드러알고잇든 春香傳을 上演해보려고 張赫宙君에게 써달라고한것입니다

記 原本을 보힐이잇습니까?

村山 新協補助團出로잇는 安英一君이 原本을가지고 잇서서 그것을 보앗습니다。

記 合本은 張赫宙氏의 쓴것이올시까?

村山 네 그럿습니다。

記 어떠한 古典이라도 그것을 現代化하자면 여러가지로 技術的難關이잇겟지마는 더구나 春香傳이라는것은 形式이 元曲과가치된것이래서 春香傳의 春香傳다운맛은 그맛이 가지는 特殊한 뉴ー안스라든지도 그노래의 音調에잇는것인데 그것을 살리는데 어떠케 하려고하십니까?

村山 勿論 寫實的으로하기는어려우리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로맨틱하게하려는데 張君도 말하기를 自己가 쓴春香傳은 自己의 春香傳이지 原作과는 아주 틀리다고합되다 더구나 맨끄테가서 宴會하는場面이빠젓슴으로 그것이 빠지면 아모리해도 재미가업겟기에 다시 써달라고 햇습니다、그리고 張君이 쓴것은 原本보담 훨씬 美化가되여서 말하자면 유모러스한 데가 업서젓습니다。

記 柳致眞氏의 脚案이잇는데。

村山 네그것은 原作에 퍽 忠實하다두군요。

記 그리고 또하가지는 그時代의 風俗習慣이라든지 一般文物制度에 關한 考證이 必要할터인데 어떠케합니까?

村山 실상 어번에 온것이 그때문에 온것입니다。衣裳、小道具가튼것을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하려며 또 音樂伴奏가 必要하겟스므로 레코ー드가튼것도 蒐集합니다。그리고 考證에는 宋錫夏氏와 相議해서 뭇고 博物館에도 가보앗습니다。그리고 音樂은 洪蘭坡氏에게 뭇기로햇습니다。

記 아프로 여러날 여기게시겟습니까?

村山 十八日까지 여기서 準備를 맛치고 다음에는 平壤으로가서 古代建物가튼것을 구경하기로하겟습니다。

記 何如間 春香傳이란원래어 오래되고 또 널리 알려진古典인만큼 春香傳이라면 벌써 조선사람의 머리속에는 다저저잇스니까 따라서 春香傳에 對한 解釋이라든지 이런것이 사람마다 다 달을러이지마는 그와同時에 缺點이잇다면 누구나 다 곳 發見할수 잇습니다 기왕 新協에서 春香傳을 힘써 上演하신다면 되도록은 原作에 充實해서 그맛이 잘 나타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村山 네 저도 그點을 매우 留意해서 힘쓰고잇습니다。

대략 이러한 程度로 對話를맛첫는데 어번 村山氏의 入京을 機會로 文壇 劇團 映畫界有志諸氏들이 同氏의 歡迎懇談會를 十六日午後五時 市內明月館에서 열겟다는바 會費는 三圓이며 多數의 參席을 바란다고한다 (寫眞은本社를來訪한村山氏 向하야左便)

劇團「花郎苑」 創立公演

作品은「琴香眞史」

새로 創立된 劇團「花郎苑」에서는 그創立公演을 二月十六日부터 十八日까지 三日間 市內 府民館에서 가지게되엿다는바 레퍼ー토리ー는 金健作「琴香眞史」(四幕)이라고하는데 演出은 洪開明氏라고한다

사진설명 연계불그·퇴ー크

撮影所에도 工場法適用

映畵스타디오가 一種의 工場으로 看做되여 近近 工場法의 適用을 밧게될모양이라고한다。從來에도 撮影所의 現像課와 電氣部만은 工場法을 適用하여잇섯스나 內務省工場課에서는 今番 從業員의 保健衛生其他 여러가지를 考慮한 結果 撮影所를「세르로이드加工製作所」로 看做하고 俳優와 시나리오·라이터ー를 除한 監督以下 從業員全部에게 工場法을 適用하기로되엿다。撮影所에서 한사람식 調査員을 任命해서 目下 그調査를 急히하고잇는데 萬若 工場法이 適用되는날에는 勞働時間 夜間手當等도規定되며 또囑托醫 看護婦도두어서 醫務新設等도 實施되리라고하는데 어러케되면 이때까지 比較的 루ー즈하든 撮影所도 여러가지點으로 從來와는 달러질것이 事實이라고한다

細碁의酬應은 果然至精至微

三玄子

나는 前回에서 朝鮮國手의 酬應을 一言한바잇거니와 이제回數를 거듭할수록저들의 失手와 誤算이 너무만히 發見되는것은 偶然한 일이다 勿論 그것이 實力不足으로 말미암는것이면 問題될것이 업지마는 나의보는바로 하야서는 一般實力은 決코二三段以下가 아니라고 밋는다 그러나 저들의 失手와 誤算이만흔것은 一般素人과 얼마나 다르지아니하니 이것은노상 緊張과 注意가 不足한까닭이아닌가한다 그리고 對局時間에는 아모러한 制限이업는모양인데 그러나 一局에消費하는 時間이 넘우적은것은 研究를 게을리하는 證據가아니라할수업스니 이를 特히省察할 必要가 잇는줄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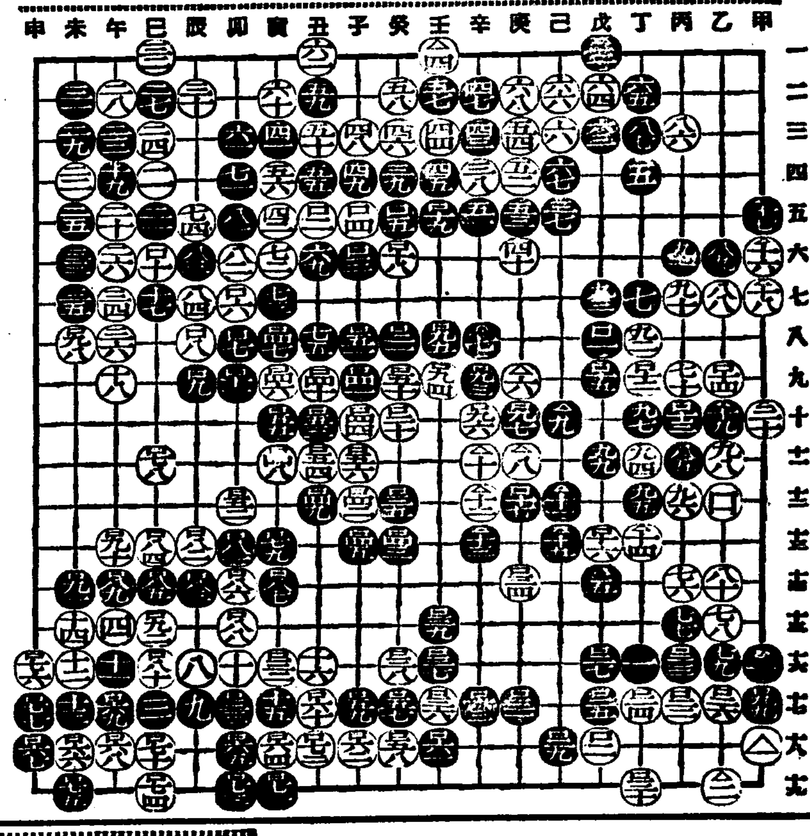
局勢는 어미 作勢問題도 戰局問題도 大場爭奪問題도 一段落을지어 微細한 結局의細碁戰에 어우러젓다 그리고黑二〇一甲의 一六 白二〇二乙의 一九 黑二〇三戊의一 白二〇四壬의 一은 모다 當然한 手順의 酬應이어니와 黑二〇五戊의一四는 交換關係에서 打算을 그르치지아니한조흔手法이다 黑이 만일 二〇五의布石을 먼저 辛의一一에 試하야 白의庚의一一로 끼여나오는것을막어두면 白은 己의一二에두어 어方面의黑戶를 全部殺害할것이니 그損은 辛의一一로 엇는것보다 四戶或은五戶가 만케될것이다 白二一〇 白二一〇辛의一一은 모다 正確한酬應이오 黑二一一己의一二는 高手의 緊着한 手筋이다 그를 己의一三으로저거노치 辛의一二로白의 田頭을두르면 어方面의黑戶가 全部殺害된다 白二一二辛의一二 黑二一三辛의一三 白二一四丁의一三 黑二一五己의一三은 要緊의酬應이오 白二一六甲의 大黑二一七甲의五 白二一八甲 할수업다

(其他 細碁工作이다 그리고 黑은前面에서 白一九八이 宋의八에두어 겨우四戶乃至五戶를 確保함으로써 先手를取한것을 강占用하야 우에서발한파가티 二〇五戊의一四로 어方面의十數戶를 確保하얏스나 前回까지의 局勢가 넘우도거우러진 關係로 敗北의運命은 免하지못하엿다)

本社獨占

國手爭覇譜 —(13)—

白 盧史楚
黑 任佑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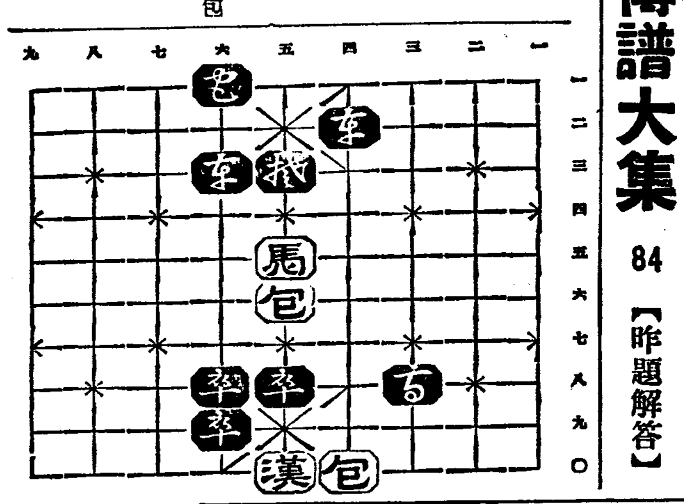


●二〇一	甲의十六	
○二〇二	乙의十九	
●二〇三	戊의一	
○二〇四	壬의一	
●二〇五	戊의十四	
○二〇六	庚의九	
●二〇七	辛의八	
○二〇八	庚의十一	
●二〇九	己의十一	
○二一〇	辛의十一	
●二一一	己의十二	
○二一二	辛의十二	
●二一三	辛의十三	
○二一四	丁의十三	
●二一五	己의十三	
○二一六	甲의六	
●二一七	甲의五	
○二一八	甲의七	
●二一九	乙의十	
○二二〇	甲의十	

…死點…

●二二七	巳의十二	
●二三四	丁의十一	
○二三一	巳의五	
○二四四	丑의九	
○二四五	寅의九	
○二三六	壬의十七	

◇博譜大集 84 【昨題解答】



一、象兵—二五包將
二、包—二五兵打
三、一車三呼將
四、卒—三車打
五、二車—三呼將
六、車—二三車打
七、馬—二包打包
將漢勝
(博譜係)

十六日(水曜)

◇午後六時 兒童と先生の時間 德壽普通學校 一、巴提便(讀本卷四、二十二課) 二年生 二、傳習場(讀本卷十、二十一課) 五年生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算術(一〇) 崔翔元
◇同七時四〇分 講演—國民精神總動員强調週間第六日『戰時經濟體制完成』(放譯) 鮮銀理事 大塚源次郞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雲淡風輕 二、唱劇調 三、三顧草廬 唱 曹弄玉 鼓手 韓成俊
◇同八時四〇分 (東)和洋合奏 一、意想曲「木曾路旅行」橋本成美作曲 二、幻想曲「谷間輿舞」坂田邦作曲 三、春海宮城道雄作曲 東洋管絃樂團 指揮 平山猛雄
◇同九時 라듸오說話 寶石과幸福 卜惠淑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童話劇
◇同六時二五分 (東)支那語
◇同七時三〇分 (東)
◇同八時 (東)常盤津
◇同八時三〇分 (城)和歌
◇同八時四〇分 (東)和洋合奏
◇同九時 (東)物語

十七日(木曜)

◇午後零時五分 歌謠曲(레코ー드)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染色에야기(一)) 朴忠彬
◇同六時 하ー모니카獨奏 一、東洋風舞曲 마ー키ー作曲 二、레이몬드 토마스作曲 三、圓舞曲『다뉴브江의잔물결』이바노비치作曲 四、장미꼿 앗사ー作曲 五、월리암텔拔萃曲 롯시니作曲
◇同六時二五 어린이新聞 白應圭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金敎信
◇同七時四〇分 講演—國民精神總動員强調週間第七日— 京城女高 孫貞圭
◇八時(東) 吹奏樂 一、行進曲 二、歌劇『軍隊敬禮』스페베크作曲 三、歌劇『道化師』拔萃曲 레온카빠로作曲 四、軍歌『靑島占據歌』瀨戶口藤吉作曲 四、行進曲『國民의意氣』海軍軍樂隊作曲 海軍軍樂隊 指揮樂長 內藤淸五
◇同八時三〇分 野談 尹秋岡
◇同九時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界樂 三、界樂 四、界樂 五、編 唱 金蘭紅 文彩紅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尺八
◇同六時 (大)物語
◇同六、二五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 )
◇同八時 (東)吹奏樂
◇同八時三〇分 (東)長唄
◇同八時五分 (東)風景

十八日(金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 "明卵젓찌개"
◇午後〇時〇五分 (東)하모ー니카合奏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레코ー드音樂
◇同六時 童話劇"세가지所願" 童心會 作과指導 朴興珉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國語(一〇) 咸濟默
◇同七時四〇分 獨唱 一、칼메나 월드作曲 二、미네종카의湖畔 류ー렌스作曲 三、歌劇『매담、버터플라이』中에서 엇던개인날 푸치니作曲 四、밤 갓리고요이 보ー대作曲 五、뱃노래 페스탈로치作曲 六、紅人의사랑노래 프리물作曲 劉美蓉 伴奏 洪春子
◇同八時五分 一、새打鈴 二、六字배이 三、興打鈴 吳翡翠 金綠守
◇同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사랑이조와 李瑞求作 配役 孟超…淑 金元浩 그안해…卜恐淑 貞지…韓銀珍 李主事…南宮璽 언챙이…李敏玄 演出 金黨 效果 金根浩
◇同九時 (平) 講演『國民體位向上에對하야』 崇實商業 金東霆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하ー모니카
◇同六時 (東)童話
◇同六時二五分 (東)支那語
◇同七時三〇分 (大)歌謠
◇同八時 (東)管絃樂
◇同八時三〇分 (東)講演
◇同九時 (東)時事解說

懸賞募集 流行歌歌詞 淨化의烽火

현대의 文化領域에잇서서 그區域한 大衆性으로보아 流行歌는 거의 時代의寵兒인 느낌이잇스나 不幸히도 이때까지의 流行歌는 그詞와 調가 한께 頹廢低俗한것이엿슴으로 一般識者의 慨嘆한바이엿는데 本社에서는 이러한 風潮를 一掃하고 새로운 流行歌의 出現을 促進하기위해서 이제 廣天下同好者들에게 淸新溌剌한 새流行歌를懸賞으로 募集해서 널리 廣布하려는바 어듸에 同意하는분은만히 應募하기바란다

懸賞金
一等 一人 五十圓
二等 二人 三十圓
三等 三人 十圓
佳作 各 十圓
薄謝進呈
(但賞金以外込 後版權은本社所有에屬함)

應募規定 一人三篇以內
應募期限 二月二十五日까지
審査方法 本社學藝部擔任
(注意)—投稿는 本社學藝部로하는데 封皮에 懸賞流行歌라 朱書하되 審選原稿는 一切返却치아니함

朝鮮日報社學藝部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머리가몹시아플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변두머리를알을때……노ー신

頭痛어아니라도머리무겁고흐릿흐릿할때나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나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어 좃치못할때나 어노ー신한봉만잡수세면 神出奇妙하게도나슬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신대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店에엣습니다 各處藥房에도무러보십시요

ノーシン 노ー신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區東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郞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三番

남자들이라도 아지노모도만잇스면은 엇더한요리이고맛잇게 만들수잇지요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武田發賣品

男性ホルモン

老衰와 精力減退는 男性호르몬의 不足으로

エナルモン (에나루몬)

初老期의疲勞、精力의衰退、視力의衰退、頭痛、眩暈이잇고 睡眠不良한분에 男性호르몬이 지금까지의 다른補劑보다도速效한은多數醫家의實驗에依하야明白합니다 男性호르몬劑도여러가지가製造되여잇지마는國際聯盟中央試驗部에서 各種의 男性호르몬劑를 比較試驗한結果 가장 著明한 成績을 보인것이 エナルモン입니다 エナルモン을 內服(又는注射)하면 全身의 新陳代謝를 昂進시키고 肉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 그活動을 活潑케합니다

靑年期에 達해도 男性機能을 發揮치못하는경우 及 靑、壯年期의 生殖器神經衰弱에도 賞用됩니다 エナルモン은 著名한 政治家、實業家、學者의 愛用을 밧고잇습니다

【價格】 錠劑 三〇錠(三圓五〇) 五〇錠(八圓五〇) 一〇〇錠(十六圓) 注射液 〇.五竓 五管 十管 五〇管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武田長兵衛商店
製造元 川崎市大宮町 帝國臟器製藥研究所

日活 黃金座
二月十一日ヨリ 二十日マデ
モリナガ ニユース 2'10 6'30
佛グレイ特作 赤ちやん 10'30 2'30 6'50
マンガ ニユース 12'10 4'10 8'30
日活・戰線報告映畫
五人の斥候兵 小杉勇井染四郎主演 12'45 4'45 9'05

桃花劇場 電話 一三三
二月十六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書間 一時夜間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RKO社特作全發聲日本版 爆笑劇 ブラウン의空中戰 에도와드 세지위크氏의監督作品 G・E부라운氏의主演
朝鮮映畫의新境地를開拓하는世界的大名畫 나그네 (監督 李圭煥) 監督 鈴木重吉、李圭煥 共同作品 出演 文藝峰、朴齊行、王平
◇讚畫事變デユース多數上映

新富座
二月十六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興行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京城撮影所作品朝鮮畫全發聲 春香傳 監督 李明雨氏 主演 韓一松、文藝峰、李鍾哲、盧載信
◇東寶映畫社特作品 江戶の白鷺 監督 石橋淸一氏 主演 小林重四郎 助演 梅龍 園子
◇全勝キネマ社作品 時代劇 紫頭巾 前篇 監督 山田象則氏 主演 市川松之助 宮川敏子
京城新堂町 電話(本)五八七七番

東洋劇場
◇東劇二重興行에注意◇ 晝間은映畫—午前十一時始映 夜間은演劇—午後七時開演
▲二月十一日부터▼ 九月山人作
◇夜間上演藝題◇ 劇團豪華船凱旋公演 『演習하는夫婦싸움』一幕二場 李瑞求脚色 『눈물』 四幕
일즉이每日申報紙上에連載하야萬讀者의눈물을짜내든대로 작가家庭小說『눈물』을巨匠李瑞求氏의脚色으로豪華船이上演하게된것은新春劇界에一大收穫이라할것이며 幼年名花優美花嬢의熱演을보도업더니여러분의눈물을짜내일것입니다
▲晝間映畫▼(每日二回映寫)
大衆料金(階上 卅錢均一 階下 廿錢)

中部版

大峴地區五十萬坪 新年度엔區劃整理
這間總督府의 施行命令이 나왓스므로 京城府會를거처工事에着手

경성부에서는 소화십이년도부터삼개년계속사업으로 영등포(永登浦)돈암(敦岩)의 토지구획정리(土地區劃整理)사업에 착수하야 방금 착착 진행중에 잇는데 그동안 경성부 도시계획계에서대현지구(大峴地區)오십만평의 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하고저 그준비를 하고잇던바 요지음총독부당국에서 그시행명령이 나왓스므로 오는 부회를거처서신년도부터 공사에착수하게되엿다

楊平金融組合의 馬龍支所를昇格

【楊平】양평금융조합에서는 금반마룡지소(馬龍支所)를 승격시키게될울나아정관(定款)일부를변경하지안흐면 안되는고로 지난 십삼일오후하시부터 양평공보교교정(楊平公普校庭)에서 총회를 개최하얏는데 종조합원수가 사천이백여명에 의원출석 일천삼백여명으로 총대회(總代會)를개최하고 곳뒤를이어 정관변경과 역원보결선거를 하얏다 역원보결선거에들어가서 본지소(本支所)총대가 충돌되여 다소 언쟁이잇섯스나 별고장업시 무사히 회를 마치고 오후 다섯시경에 산회하얏다 그런데 마룡지소는 오는사월일일경에는 마룡금융조합의 간판이붓게되리라한다

養鷄講習會開催
京城府勸業課와三井物産主催 百餘名養鷄家가聽講

경성부권업과와 삼정물산(三井物産)의 공동주최로 경성부청회의실에서 십육일오전부터 경성부내외의 양계가(養鷄家)백여명을모하서 양계강습회를 열엇다 일본비료회사(日本肥料)의 대구보덕오랑(大久保德五郞)씨가 주로 육추(育雛)에관한 강연을 하엿다
경성의 일년간계란소비량이삼십오만관인데 그중경성부내에서 생산하는것이 겨우오만관에불과하고 모두 조선각지와 일본내지에서 이입하여오는 현상이니만치 경성부의 금후양계증산은 긴요한문제로되여잇다

府營各市場의 賣上高모두增

경성부영 공설시장의 지난일월중의매상을부면 화원정(花園町)... 구배삼십오원으로 전년동기보다 일... 룡산(龍山)서대문(西大門) 마포(麻浦)영등포(永登浦)각일용품시장의 매상총계가육만팔천구백원인데 전년동기에비하야 구천팔백이십일원이 증가되엿고 동대문 서린정(瑞麟町)서대문의 각시탄채소시장의 총매상은 일만이천... 사탄채소시장과 ... 합계는 ... 전년동기보다 ... 증가되엿다

伊川署武道納會 隣郡各署員參加

【伊川】국민정신총동원의 주간을 맞이하야 사기(士氣)의 작흥과 무사도정신의 함양으로부터 엇보다도 시기에 적절한것임으로 이천경찰서에서는 저간이라는 ... 연무장에서 이천서원은 물론 철원(鐵原)평강(平康)김화(金化)각서원을 참가하게하고 이천군내 각단체도 참가하야 성대한 무도납회를 개최한다는데 이천서에서는 그준비에대분망중이라한다

滿洲移民班長 講習會를開催

【利川】금춘만주로 나갈 강원도이민(江原道移民)은 이미천여호에 달하는데 이민가족에게 만주사정을알리기위하야 이민각군에서는 반장(班長)의 강습회를 개최케되엿는데 각군의일할은 다음과가티고한다
金化 二月十三日 平康 二月十三日 伊川 二月十三日 鐵原 三月三日

嶺南青年團이 「늑대」를生擒
開城府水源池에서

【開城】부의 령남청년단원(嶺南靑年團員)백여명은 요즈음 정신작흥주간을 마지하야 심신을 다련할 목적으로 토끼사냥을가진바 산중으로 지난십사일 그중 련산을 맹동시켯스나 결국은 눈먼토끼한마리도못잡고 동일오후 삼시경 섬석히도라오는도중 개성부수원지(水源池)방면에서 뜻밧게 송아지만한 「늑대」한마리를 사로잡게되여 개선가를 노피불렀다한다

仁川券番創立總會

【仁川】인천부민으로서 다대한 기대중에잇든 주식회사인천권번은 기보한바와가티 지난십삼일오전열한시사십분에 인천금융조합루상에서 주주창립총회를 개최하엿는데 창립위원장 김윤복(金允福)씨의 개회인사가잇슨후 주주보고가 잇슨다음 의안(議案)이지행중 정관(定款)제이십삼조일부를 개정하고 만장일치가결하엿는데 역원씨명은다음과갓다
▲取締役社長金允福 ▲取締役鄭旭鉉 ▲取締役吉木善介 ▲取締役宋璽學 ▲取締役張仁秀 ▲專務取締役尹泰鉉 ▲監査役金泰昕 ▲監査役李明浩

信仰으로본開城에는 女子가斷然優勢
基督教와佛教徒多數

【開城】불교로는무항수업는 세상을련적(靈的)으로 구하자그도못하면 불국파유락이친 속세를초월하야 삼승으로 드리가벗들(法悅)의 세계에서 살어보자─이러한 유심론(唯心論)적인생관을 갓고사는 중생들이 몇만인구를 산하는 개성에는 얼마나되나 즉 「기독교」 「불교」신도녀신자수가 금년이월현재로 조사한수가 사천육백사십이인인데 그중기독교에 속한신도가 일천삼백칠십삼인중 일천구십삼인이 조선감리교회(朝鮮監理教會)의 신도라한다 그다음 불교신도는 이천이백삼십팔인인데 그중일본내지인 불교도가 이천구십사인 남어지 일백사십오인이 조선인불교도라하니 개성부내에 거주하는 내지인은 대부분이 불교에 속해잇다 볼수잇스며 다음으로 신도 즉 천리교(天理教)신자수는 겨우 구백삼인으로 현세에 제일령락한 종교단체라 안할수업다 그러면 이들 사천유백여명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포교사급 포교소는 몇이나 되나─포교사삼십구인 포교소십팔개소─그런중 여신도가 남신도보다 칠백십이명이 더만타는점으로보아 오늘날 개성사회의 종교적생명은 여성에게더기피 뿌리를 박고잇다함을 알수잇다한다

表彰과傳達式
平康郡에서도

【平康】평강군에서는 지난십일 기원가절을 복하야 군청회의실에서 관민유지와 다수내빈참석하에 군내각지 권농공제조합(勸農共濟組合)급 개생지도농가(更生指導農家)와 납세모범인물(納稅模範人物)등 행적(行績)이 우량한자에게대하야 총독도지사의 표창장과 상품전달식을거행하엿다 평강군수로부터경중한 훈화(訓話)가 잇슨다음표창장서장의 간곡한훈사가 잇슨후 소학교 유명상 송지에 목전면장(木田面長)외 몃사가잇섯스며 끄트로 수상자대표로 답사가 잇슨후 오후세시에 폐회하엿다

被表彰者
納稅模範 平康郡木田面 李連祚
平康郡縣內面文山里 更生指導農家 李國琦
平康郡南面芝石里 勸農共濟組合委員 閔丙夏
平康郡縣內面新井里 納稅組合長 ...
關東明德平康青年團邑內分團

舊正初氣分에陶醉 開城에賭博盛行
새옷입고留置場行

【開城】아직구정초회 기분이농후한개성에는 각지에서 도박은놀음판─그러처인동판 벌어지는 산천내지에 요정경기도 푸성하는 도박장이 이곳저곳에 요란하거니와 도는돈내기 노름에서는 도박장이 이곳저곳에 버러저서 요즈음개성서에서는 비상선을 느히는 손화과전방에는 한참이기 뒤며 천령하기 한편으로 돈며먹기대 잇다가 잠기소리가 잘당나는 사람이 무요즘개성서에서는 비상선을 느

富川郡蘇萊方面에 化學工場進出說
某某財閥에서基地를物色中 交通完備로發展期待

【仁川】대지(對支)무역의중심으로 일본내지의대자본벌이 조선으로 진출하야 공장시설과기타각사업을 일으킨은 이미사실이증명하는바어니와 공도(工都)인천을비롯하야 부천(富川)군 소래(蘇萊)방면에까지 모모재벌이진출하야 모종의 대공장을 건설하려고 방금 알중비약을하는중이라한다 그지방은 남으로 경부(京釜)철도 동으로 경인(京仁)철도 서으로는수인(水仁)철도를끼고잇서 교통운수가 편리하야 지리적으로 조건을 가추고잇어서 이들은바당을 매입가려가지고 경기도소래면정(蘇萊面)이 불원한시일에 준공하게될뿐아니라 동소래면대야리(大也里)계수리(桂壽里)일대를중심으로 삼천만원자금의 대공장을 건설하야재조(曹達)여산(硫酸)유안(硫安)등화학적공사업을 대대적으로 개최중이라는바 이러한 공장이 실현되는때는 조선비료(肥料)의 공급부족을 조하여회할수잇다하야 그들재벌은삼정(三井)삼릉(三菱)야구(野口)산경(三菱)등이라한다

府社會事業助成會를 厚生協會로改稱
法人으로組織코擴充

경성부내에잇는 각종사회사업의 경영조성을 목적으로하는경성부사회사업 조성회에서는 회의적극적활동을 도모하기위하야 이번이회를 법인조직으로 변경하고 그이름도후생협회(厚生協會)로 개칭하기로되여 곳그설립허가신청을 총독부로내게되엿다

國旗揭揚臺設置에 高橋氏三百圓寄附

부내황금정(黃金町)일정목입배육십이번지 고교웅길(高橋熊吉)씨는 부내서대문정에서판내주민들이 씨의소유지인 금화산(金華山)우에 국기게양대를 세우려한다는말을듯고 수일전에 자진하야 삼백원을기부하야 노피록십척의 철골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줌으로 그곳주민들은 씨의 ... 하엿다

煙草代를節約獻金

【金浦】김포군 검단면 원당리(黔丹面元堂里)구십이번지 김종번(金種範)씨는 금년 육십구세의 로인으로 작년시월부터 금년일월까지 사개월동안 자기자질에게서 담배갑스로 어든돈을 담배를 절약하야 현금이원을모아 두엇다가 지난팔일에 김포경찰서를 차저와서 국방헌금으로 헌납하야달라고 부탁하엿다

本報仁川支局後援 戰時財政講演會
十九日夕、仁川公會堂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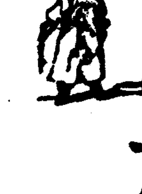
【仁川】기보한바 인천상공협회(仁川商工協會) 주최 경제강연회는 본보인천지국 후원아래오는십구일오후일곱시부터 인천공회당에서 열리게되엿다 이강연회가 팀방한을 마하 인천상공계는 동협회의 처음 사업으로서 더욱이 지나사변후의 경제사정을 중심으로한 강연이니만치 누구나 한번 청강하려고 손을꼽아기다리는 중임으로 당일밤대만원의 성황을 일우리라하며 연제와 강사는 알에와갓다
▲北支貿易과 仁川港의 重要性 仁川商議副會頭 金鍾燮
▲戰時財政經濟와國民의協力 京城法學專門學校教授法學士 朴孝三

仁川	
戰時財政經濟講演會	
演題	戰時財政經濟와國民의協力 京城法學專門學校教授法學士 朴孝三氏 / 北支貿易과仁川港의重要性 仁川商議副會頭 金鍾燮氏
時日	本月十九日午後七時
場所	山手町公會堂
主催	仁川商工協會
後援	朝鮮日報仁川支局

長篇小說 林巨正 【49】
洪碧初 作 / 金熊超 畫

토굴(十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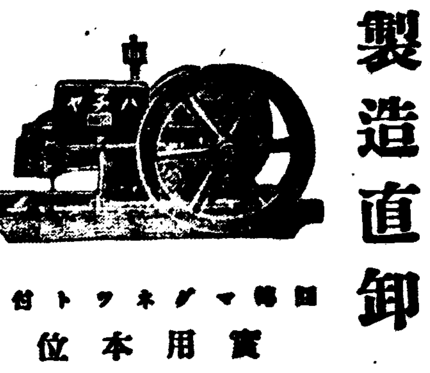
꺽정이가 원씨집에 가서 저녁밥을 먹고 나오는길에 김씨집에 들러서 밤에 기다리지말라고 일르고 장치를 소흥이집을 차저왓다 소흥이는 실년기생노릇에 니어 신물이 나 가 안해서 평생 의탁할만한 사람을 은근히 물색하든중에 선달을 맛낫는데 근지 문벌치 안은것이 흠이라면 흠일까 다른것은 하나도 맘에 흡족지안하엿이 업서서 차차 보아가며 몸때 모하노흔 사천으로 기둥서방에게 몸갑을 치러주고 그 선달을 따라가서 그집사람으로 잡잘 누이라고 맘먹고잇슨까닭 에 꺽정이의 얼골을 보기만하면 언제든지 얼이 한바퀴씩 빠지엇다 묘까에서 꺽정이의 기침소리가 나자마자 소흥이가 방에서 쪼차나와서 지정에서 나오는 우슴으로 마저드리고 담은 우리정이를 방아니하라고 일러두고 달하야 일각문을 초저녁부터 다더걸게 하엿다 밤에는 불을 켜지아니하고 마 루끄테 사초롱을 달어서 불비치 방안을 은은하게 비치엇다 꺽정이는 방에 들어서며 바로 의관을 버서서 소흥이를 주고 아래간 방문아페 퍼더 버리고 안고 소흥이는 의관을 바더서 옷거리에 갓다걸고 꺽정이 여페 와서 얌전하게 안젓다 『오늘 어듸 노리가섯나』 『련못골 어선전(魚廛)대에사랑노릅 갓서세요』 『어선전이란 자네 조하는사람인가』 『나는 지금 조하는사람이업세요』 『정말인가』 『내속을 소경여시 말하면 지금 넌지나자해도 못냇는냥반이 꽉 한분인지요』 『그게 누군가』 『그건 말슴아할테요』 『누군지 좀 알세그려』 『알어서 무어하시게』 『내가 그사람보구 거정짜라구 좀해야것네』 『지금짜는 안하시고 결정짜만하신다면 진짜 그냥반은 아직(?)숨겨두고 그냥반의 가짜한분 대드리지요 자 저기기십니다』 소흥이가 뒤벽에잇는 꺽정이의 그림자를 가르치니 『사람을 놀리지말게』 꺽정이는 그림자 가르치는 소흥이의 손을 잡아서 품안으로 끌어왓다 『진정인가』 『소흥이는 대답이 업섯다 『자네가른 일등명기가 조하하는사람이 하나뿐일리가잇나』 『그건 왜 못냐고』 하고 되물엇다 『아니요 어선전이 친구냥반 대여섯분 청해가지고 술을자섯세요 그친구냥반중에 새로 외임해가는분이잇서서 주장그냥 바대전인갑듸다』 『선천의 친구면 어듸 변지수령(邊地守令)이겟군』 『황해도 봉산이라지요 녜전세월에는 호반들이못가든 자리라고 말들합듸다』 『응 그래 새루 봉산군수된 윤지숙인세그려』 『윤씨랍듸다 선다님도 그윤씨를 아십니까』 『나는 면분두업구 말만 들엇네 언제쯤 도임한다구 말하든가』 『그동안 숙배(肅拜)서경(署經)다 마치고 곧에서 신연하인 어 오기만 기다리는데 일간 오면 오는대로 곳떠난다고합듸다 달은냥반들이 무와재를 작별할나간다니까 나머러도 부듸 가치나오라고 말하든구면 이요』 『봉산군수 작별하러 나갈텐가』 『그건 무어하려 나가요 선다님이 어듸 외임을해가신다면 넘어 작별은 고사하고 배행이라도 가지만』 『팔만 들어두 고마웨』 『참말 선다님 저 황해도대러 꺽정이 이야기를 더러 들으셧세요』 꺽정이가 속으로 깜짝 놀라 섯스나 거죽으로는 시치미 떼고 『한참만에 『그건 왜 뭇나』 하고 되물엇다 『사내가 사내답게 잘나야지요 좀 사내다워 보이두 그것 두 여편네 저린 잘자녀 조치만 위외 여러갈래로 흘리지만 면네 저흔 쭉쪼가터 인물이 우루 죽습니다』 『사내두 사내나름이구 여편네두 여편네나름이겟지』 『그야 그러치요 그러치만 여자네가 사내가아니라 사내의 옹심기픈 정을 몰라서 사내정을 다바라하네』 『정이 붓으면 못하이 소서야 하고 정이 못이면 못할일이 어야하지 그저 옹심기퍼 무슨 맛입니까』 『정든이란 고만하구 담은이에 기하세』 『무슨 조혼이애기가 잇거든 하십시요』 『자네 오늘 노르가슨 어애기나 좀하게』 『술치고 소리하고 웃고 지거리고 그리고 한동해 보내지요』 『어씨집에 오늘 무슨 잔치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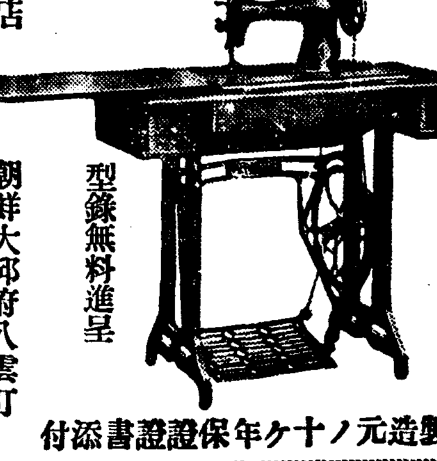


製造直卸
最モ完全ナヤチハルナ發動機
三馬力半 三馬力半ロ七馬力半乾
クボタ型瀝發動機
實用本位
日本ヒノナット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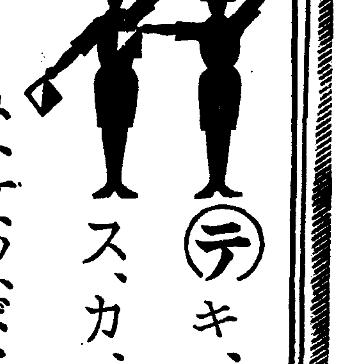
八谷式精米機
大號 中號 一號 二號 各附屬品完備
傳動具一式
機械工具一式
(型錄無料進呈)

◎日本ミシン製造株式會社製
ブラザーミシン
代理店特約店募集
型錄無料進呈
總代理店
製造直卸
朝鮮大邱府八雲町
八谷工場營業所
長電話 一〇四七番
振替京城一貳二参七番
受信略號 タイキウ、キカイハチヤ
製造元ノ十ヶ年保證書添付





テキ、ワ、
ス、カ、ウ、
ト、ケ、ツ、ボ、ー、
ゲ、ン、キ、ナ、シ、
뽀ー어菓子
スカウト
菓子店에잇고五전령으로풀습니다



パゴダ公園東門側
科齒
京城樂園町一四六
電·光③三〇二〇番
大京齒科醫院
院長 金喆庸
前世醫專齒科工部主任 李龍基
分院 京元線議政府驛前 擔任醫師 蔡禧銘

創立 明治三十二年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出張所 京城府內鐘路、東大門、西大門、本町、南大門、龍山、西四軒町、長湍、仁川、平澤、清州、仁川本町、同牧の島、同富平町、同三千浦、統營、馬山、鎮海、全州、咸興、端川、惠山、吉州、羅南、清津、會寧、沙里院、教寧、鶴川、平壤、同大同門、鎮南浦、定州、新義州、同本町 ...

男女淋疾의靈藥
治麻球
定價 五十個入 一圓八十錢 百個入 三圓 三百個入 ...
患者諸氏여書論보다效果에實驗試驗하시오 ... 用法 ...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
北米製藥四十餘種
製造元 救世藥館
電話②二九六六
振替京城二九九九

凍傷にアスター
大阪市旭區蒲生町二丁目九五
朝鮮日報大阪總販賣所

國民精神總動員!!
栄養報國 さけの常食!
あけぼの印 オーロラ印 さけ罐詰

製造元 東京 東洋製罐株式會社
發賣元 東京 日魯漁業株式會社

本校校長殿後觀先生以宿同今月十三日午前二時五分別世依左記學校葬擧行玆以訃告
發靷 二月十九日午前九時京城府內需町自宅
永訣式 同日午前十時三十分本校校庭
安葬 同日午後二時三十分高陽郡崇仁面貞陵里先塋
昭和十三年二月十五日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新聞廣告圖案懸賞募集

電球는 밝고 消費電力이 적은것이理想的이며 眞空管은 音量이豊富하고 音色이맑은것이理想的입니다
新마쓰다람프·마쓰다眞空管은 모두本社의硏究所가 자랑할 最新最良의製品입니다

課題 마쓰다람프와마쓰다眞空管의新聞廣告圖案을募集함
條件 (イ)黑一色으로하고 一九糎×二六糎以上의 크기로할것
(ロ)用紙는켄토나畵用紙에限함 縱橫아무거나조흠
(ハ)마쓰다람프와마쓰다眞空管과는 別個의用紙로하고 一面에兩種을그리지말것
記載事項 應募紙의裡面에 (1)本廣告를보신新聞名 (2)住所氏名

賞
第一等 二〇〇圓 一名
第二等 一〇〇圓 二名
第三等 五〇圓 五名
佳作 二〇圓 二〇名

締切 昭和十三年三月末日到着分으로써締切함
送先 神奈川縣川崎市 東京電氣株式會社廣告課
審査 東京電氣株式會社廣告課
發表 昭和十三年四月下旬入賞者名을新聞紙上에發表함
御注意 ❶入賞作品의版權은本社에移轉됨 ❷應募作品은返戾하지안흠 ❸照會는一切謝切 ❹規定에違反된것은無効

新マツダランプ 二割밝고 二割利得
マツダ眞空管 맑은音色 豊富한音量
マツダ ランプ 眞空管 製造元 東京電氣株式會社 川崎市

國有林無償貸付

木材需要者에게빌려서植林

產金增產、鐵道新線의 敷設、水力電氣의開發等 괄목할 躍進은 어에要하는 坑木、枕木의供給不足을 招來하야 朝鮮에잇서서의木材政策은 新展開가 要望되여잇는데 農林局으로서는 應急措置로서 多少의 林政上의 困難은 잇다하드래도 重大時局이므로 豫定量以上의 積極的供給을 計劃하는 一方 長期計劃의 樹立을 急히하야 不遠開備하는 營林署長會議에서 協議할模樣이다 그러함으로서 必要로하는 事業家에게 國有林을 貸付하야 이에植林을行케하기로되엿다 即有事之際 國家에서 必要로할時는 이를解放供與할것을 條件으로 相當히 大面積의 國有林을 無償으로 貸付하야이에 植林케하야 事業家에게 自家用木材의 供給을 確保시키는 同時에 國策上木材資源을 豊富히하려는 一石二鳥의 名案으로 十四日野口 朝窒社長이 湯村農林局長을 訪問하고 咸南赴戰江水電附近의 裸地에 對하야 交涉을 開始하엿다 오즉 性質上 借受人은 相當한 財產的確實性이 有함을必要로하므로 一般에게는 豫想키어려우나 國有林利用의 見地에서 新機軸을 여는것으로 注目되여잇다

湯村農林局長談

積極的適林政策의 一로서 資力이잇는者에게 國有林을 貸付하야 植林케할려는데 國有地貸付의 條件으로서 國家가 必要하다고 認定할時는 언제나 其植林을 相當한價格으로 買取한다는 一項을 加하려고 생각하고잇다 但 『팔프』는 別個로생각할것이므로 『팔프』材 生產을目的으로하는것은 別問題이다 또 坑木과 枕木等은 國策遂行上絕對必要한것이므로 消費節約이라하드래도 여러한 方面까지 節約하는것은 不可能하므로 必要한 伐採를 하야 此非常時를 打開할터이다

野口氏이미交涉開始

高周波電力問題

日本高周波重工業의 第二期擴張計劃인 城津工場의 增產에 要하는 電力問題는 野口遵氏의 長津江水電으로부터 供給을 受할方針下에 野口氏側과 昨年來 實際交涉에 對하야 折衝中인데 野口氏側은 高周波工場의 需要電力이 二萬四千키로라는 大量需要인것과 野口系諸事業에 對한 供給關係에서 高周波의 要求에 對하야 快諾지안코 交涉은 停頓狀態로 現在에이르고잇섯는데 遞信當局等의 調停斡旋에 依하야 大體兩者間에 交涉이 成立될 模樣으로 不遠 正式賣買契約을 보리라고한다

朝運과非合同業者 對立解消機運!

專用貨車開放과宅扱

運送合同以來오래동안 對立關係에잇는朝鮮運送과 非合同運送業者와의 關係는最近顯著히 接近의 機運을 釀成하야 엇어京仁間의 專用貨車利用에 對하야서는 朝運은朝日組、福島組等에開放하고잇는데 朝鮮運送에서는다시 宅扱의實施에 伴하는下請과 專用貨車의 全線的解放에 依하야 非合同業者와 緊密한連繫를 圖謀케되엿다 即

一、宅扱의實施에 對하야는 非合同業者의 要求에依한 全朝鮮四百三十店에 其配達下請을 하게되여 十六日부터 實施하엿는데 配達料金은 鐵道局으로부터 支拂되는宅扱料金의八割을 非合同業者에게支拂함

二、專用貨車의 利用에 對하야는 일즉이 非合同業者로부터 熱望이잇스므로 朝運에서는專用貨車를 可及的開放할 方針下에 오직 京仁線뿐만아니라 여것을 全線에 미치게하야 朝鮮運送에서는 十五日 專用貨車取扱店會議를 열고 其具體的方法을 協議中으로 今月末부터 實施할意向이라한다

貯銀預金積金

一月末에잇서서의 貯蓄銀行의 預金積金 現在高는 如左하다(單位千圓)

普通貯金	八、四七一
特別貯金	八、九七三
据置貯金	七、〇〇四
定期貯金	三三、二七四
定期積金	一、六一五
別段預金	[illegible]
合計	五九、四八二

咸南地方에 棉花試作

東洋棉花寄附

從來咸南地方은 棉作不適地라고 棉作獎勵地區에서 除外되여잇섯스나 湯村農林局長이 知事時代에 棉作可能의 確信을가지고 準備에着手한일이잇섯는데 그대로放置하엿든바 이것을드른 東洋棉花支店長이 咸南의棉作成功은 國策上重要意義를가진것이라고하야 積極協力을要求하여왓스므로 總督府道當局도 快히 이와協力하야 드듸여來年度부터 三年計劃으로 棉作試驗과 種子量配布키로되엿다 그리고 南部平地帶에는 陸地棉、北部에는在來棉이 適當하다고보여 其試作에要하는經費는 三個年間 東洋棉花에서寄附하리라고한다

米、苹果特割輸送

今年도存續內定

鐵道省의 對內地政策에依하야 朝鮮으로부터의 特割輸送의全廢는 朝鮮으로부터의 連帶特割輸送인 米、林檎、鮮干魚、栗에及하려하는 運命에 잇섯스나 朝鮮鐵道局과 朝鮮運送에서는 事態를憂慮하고 過般來 鐵道省과交涉中이든바 米及林檎의 特割輸送은 今年度도繼續하야 存續키로 內定하엿는데 鮮干魚及栗의 時期은 廢止케되엿다한다

燒損木『팔프』製造

遂工業化에着手

咸南北의 高地帶에 多量으로 잇는 『사-슨』의 燒木으로부터 『팔프』製造에 對하야서는 其後 試驗한結果 製品을 多量으로 使用하면 生木『팔프』와거의同質의것을 어들수잇는것을알고 總督府에서는 드듸여 一、二個月內에 試驗도 完了하므로 어것을 工業化로 進出케되엿다한다 林業課의 調査에 依하면 其燒木은 咸南北에서 北鮮製紙의 十個年의 需要量을채울수잇는 程度로 多量히잇서서 其利用은 相當한 重要性을 認定케되엿다한다 朝鮮에서는 食料以外大量需要가 업스므로 價格의暴騰이나 原料難은 업슬것이라고 본다

支那事變國債 賣出好成績

支那事變國債第二回郵便局賣出은 十五日부터 十八日까지인데 賣出第一日인 十五日의 全朝鮮郵便局賣出狀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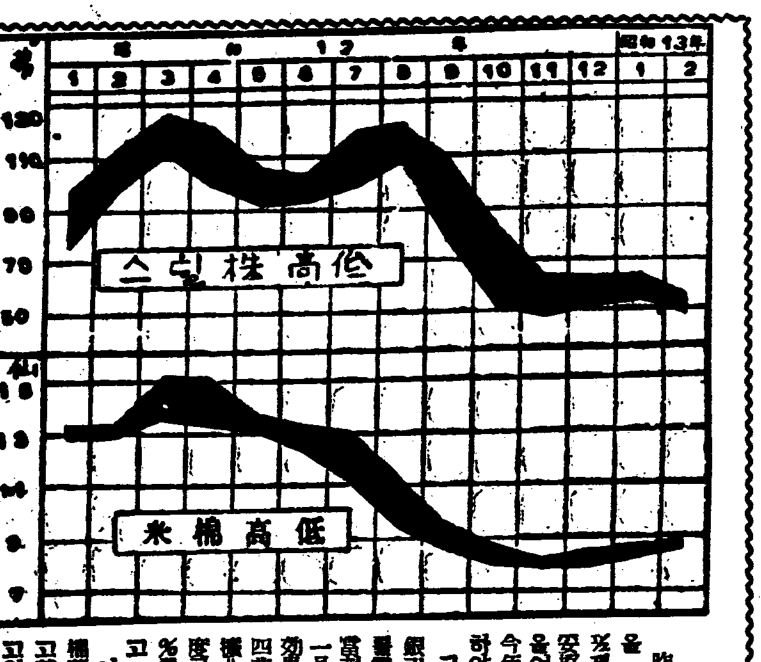
五百圓券	一萊枚	[illegible]
百圓券	一〇、六〇枚	一〇一、六〇〇
五十圓券	二五六枚	一三、〇〇〇
二十五圓券	[illegible]	[illegible]

合計二十三萬四千七百七十五圓으로 總額四十五萬圓에 對하야 五割二分强의 好成績이다 또 第一回賣出時의 第一日의 比率에 比하면 一割八分이 增加하고잇다한다

酒精原料薯의 買入價格決定

一貫二十四錢

燃料國策에 順應하야 總督府에서는 드듸여 無水酒精工業에 進出키로 決定하고 工作을 進行하고잇는데 其原料로서는 當分間甘藷를 使用할 豫定으로 十三年度는 滿洲國에서 增產을 圖謀하는 外에 南朝鮮各地에서 將來의 增產에 充當할 甘藷의 育成을 行케되엿는데 酒精工場의 原料薯買入價格은 切乾一貫二十四錢으로 決定하엿다 其價格은 內地의 二十三錢보다 一錢高이나 이것은 對抗作物과의 關係로 秀選하고 또 朝鮮의 反當收量이 內地보다 低位에 잇서서 生產費가 高價인것과 甘藷를 獎勵키爲함이다 또 九州地方에서는 最近의市價 一貫二十五、六錢으로引上하여 要求되여 原料難에 陷하고잇다



『스틸』株와米棉

昨春 三月十一日、一二六弗⅞의 最高價를 付한 以來 株價는 十一月廿三日에 至하야 四八弗½까지 慘落하엿다 其後 『政府의 防止工作』과 『財政과의 妥協促進』도 年初에 잇서서의 大統領의 『二敎書』의 힘을 어더 反騰氣勢를 示現하엿고 一月十五日에는 六二弗¼이라는 今年最高價를 示現하엿스나 어와同時에 主要農產物도 反騰하야 米國財界도 此邊에서 回復하나인가 생각되엿다 그러데 一月廿六日 『루스벨트』大統領의 鐵鋼勞動者賃銀引下反對聲明을 契機로 再次反落하야 其後는 低迷狀態를 繼續하야 今日에 至하엿다 이聲明에 依하야 今年初以來 相當히 瀰漫되여잇든 政府財界의 妥協氣運은 急轉惡化하야 一月二十八日에 公表된 八億弗의 軍擴案도 政府가 期待한 効果를 奏치못하엿다 發表當日의 『스틸』株는 五四弗⅜으로 도리혀 反落하는 奇現象을 보혓다 日本이면 軍擴=金屬工業이 最有望인데 米國의 金屬工業은 現在極度로 不振에 陷하여잇다 最近의 製鋼作業率과 如함은 三〇%를 前後하고잇고 G·M會社는 三萬人의 勞働者를 解雇하고 『스틸』株는 無配의 狀態이다

이러한 金屬工業株를 中心으로한 株式市場의 動向에 對하야 棉花는 어떠한가하면 昨秋十一月四日의 七仙七九를 最低로하고 其後는 新農業法의 成立을 期待하야 一月十五日現在는 八仙九三을 示하고잇다 이것에는 新農業法의 成立期待가 包含되여잇다 如何튼 今後의 米國財界의 動向은 速斷을 不許한다

漁組員福音

朝鮮水產會關係에 奉職하는 役員의 退職給與金支給에 關하야는 從來各團體가 區區不統一로서 財政이 豊富치안흔 團體에잇서서는 어것을 支給할수업고 또 漁業組合聯合會에는 轉勤의 制度가 잇서서 一定한 在勤年數에 達치안흔者는 退職給與를 受할수업는 狀況에 잇섯는데 朝鮮漁業組合中央會의 設立을 契機로 退職給與金의 共同計算을 業務의 一로 實施準備를 進行하야 드듸여 成案을 엇게되엿다 또 從來宿直賄料의 規定이 업서 不便이 만핫스므로 今番 이를 設定하야 給與規程中에 改正을 보게되엿다

朝鮮內揮發油

市價統制成立

◇十五日부터實施

朝鮮內에잇는 揮發油市場은 各販賣業者의 亂賣에 依하야 오래동안 混亂低迷를 繼續하야 地方에 依하야서는 公定價보다 一箱에 對하야 七、八十錢이나 下廻한다는 狀態에 陷하여잇섯는데 朝鮮石油『라이징선』『텍사스』『스탄다-드』의 四社는 今年부터 內油三社(小倉、三菱、早山)에의 販賣配定이 削除되엿슴을 機會로 市價의安定을 圖謀키爲하야 過般來協議中이든바 市價安定에 關한 協定이 成立되여 十五日부터 實施하엿다 右協定의 要旨左와 如하다

一、昭和十三年二月十五日부터 現行昭和十二年九月十六日附發表의 公認價格을 嚴守할것

二、各石油會社의 承認치안는 旣約定品은 認定치안흘것

三、仕切原價(正味價)外에 販賣店의 利潤이 되는 割戾는 一切行치안흘것

四、右新價는 二月分販賣店配定數의 半數에 適用할것

株式投資時代

經濟問題를中心으로 國際戰爭이 激化되어 戰火가 點에까지 波及되여잇는바 最近의 國際情勢를 洞察하면 支那事變이 終熄되어도 準戰時的非常時狀態는 容易히 解消될것이아님으로 財界로서도 一段覺悟가 必要한것이다 그러나 一面非常時體制의 國策遂行에 伴하야 『인풀레』의 進行과 物價高騰傾向도 不可避의 狀勢에 잇다 確定利付의 定額證券보다도 物을 代表하는 株式投資가 보다 歡迎되게되여 膨大한 豫算放出로 事業界는 益益繁盛을 豫期할것이다 더욱이 事業界로서는 低價原料의 消化와 低價約定品의 受渡一巡에 依하야 利益率의 大幅向上을 보게되고 其中에는 時局產業의 全盛時代가 到來할것이다 그러나 戰後財政의 常態復歸와 國際經濟戰의 對應策으로서는 輸出貿易의 振興과 消費節約以外에 方策이 업슴으로 平和產業의 擴充을 念頭로 하는 時代도 不遠하다 그러므로 短期投資는 時局株 物色을 할것이나 長期의 大投資는 時局株로부터 平和產業株로 옮겨야 할것이다

株式 浮動

少幅圈內 今日의市勢(十六日)

朝取新舊一息

昨後場에 朝取는 百圓臺를 보기는 今前場에는 九十九圓臺에서 朝新은 四十一圓臺에서 高値이고 當限一息이엇다 日來의 急騰은 一時의 買煽으로 因한 價位修正으로 보아야할것이다

新材料를期待

積極買가 나오지안코 嫌氣賣로 不振勢를 보혓으나 主力株는 今前場에는 大引에 鐘紡二百八十二圓 東新百六十九圓四十錢

前場少高

今前場은 東新百六十九圓四十錢 鐘紡二百八十三圓五十錢 大新九十五圓 朝取九十九圓五、七十錢 朝新四十一圓二、五十錢이엇다

後場更押

後場은 東新百六十八圓九十錢 鐘紡二百八十二圓五十錢에 更落、大新九十五圓四十錢 朝新四十一圓三十錢에 各寄付後 更押不勢이엇다

國債 堅調

底意强硬

米期 保合

難伸難押

前場保合

今朝는 雨天으로 阪地初付三十四圓三十錢인 一丁高로 高唱하고 當은 二圓二十錢인 三丁高 先限은 三十一圓三十九錢인 昨正同이엇다

後場不變

後場은 三十一圓六十錢에 同價始 四節까지 同價이고 五節六十一錢이엇다

昨今正米事情

朝取期米取組內容

各地仕手關係

正米 閑散

無材料로

京城保合

仁川安定

釜山軟調

大邱下支

群山釘付

木浦釘付

海外經濟

株式

期米

米株 京城實米取引員 仁川本町 吉村榮左エ門商店
趙俊鎬取引店
水店 重石 鉛 分析 鉱石 買入 禄商會 京城鍾路一丁目三三
仁川米豆取引所取引員 桑野取引所
益 康 金益證券 京城 仁川